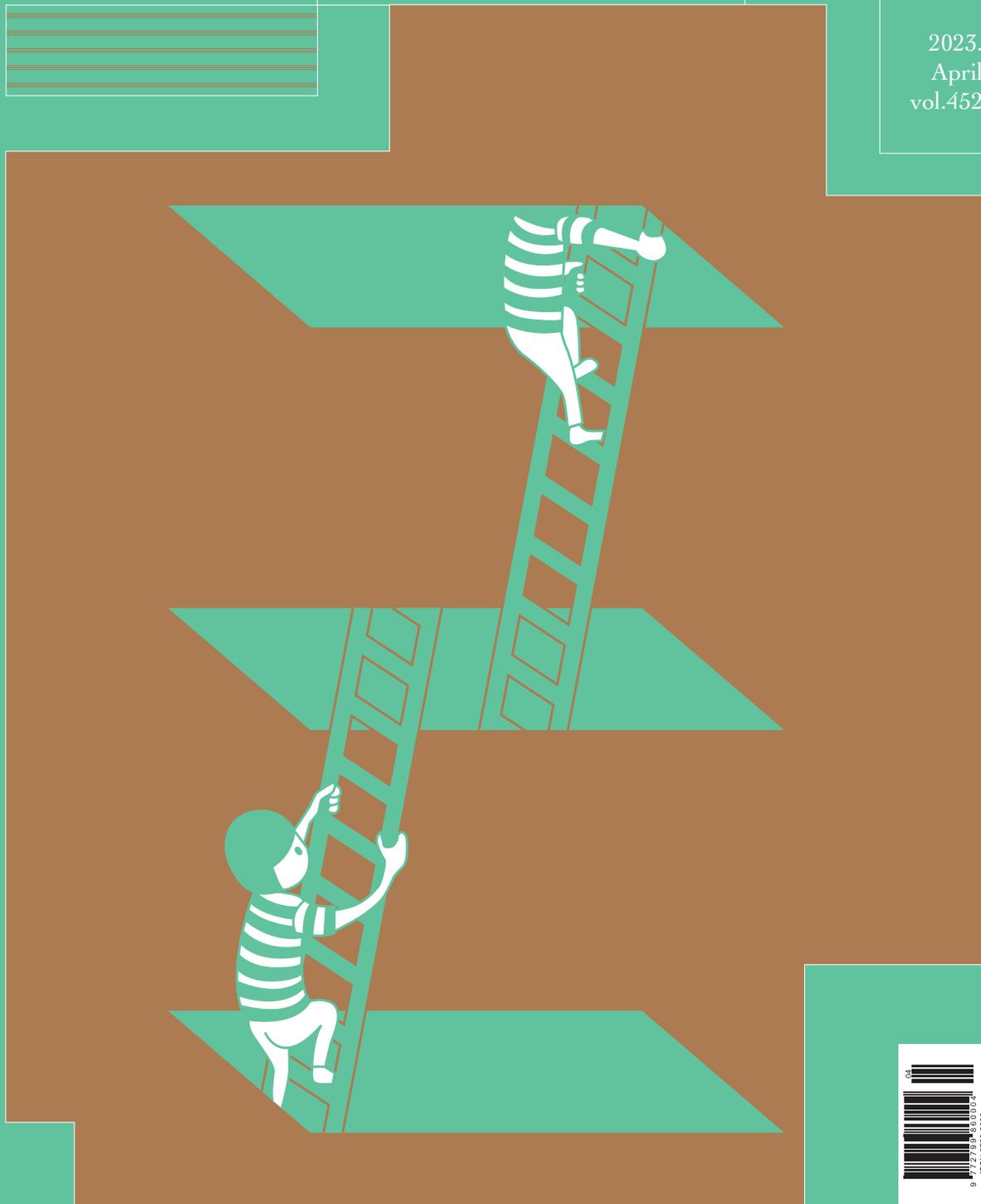


04

with IBK  
IBK MAGAZINE

# 관찰아! 한 번 더

2023.  
April  
vol.452



04 : April

# 괜찮아, 한 번 더!

당신에게 위로를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결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마음을 다했다고 믿어요.  
여기저기 바삐 움직이며 고단했던 하루,  
4월의 오후 햇볕이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한순 깊게 쉬고

때 내아가는 평신에게

한순의 든든이 보호 전하는 일

# Contents

2023.  
April  
vol.452

관찰아!  
한 번 더

## 08

에세이  
관찰아 한 번 더!

## 10

슬기로운 생각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배우거나 더 배우거나

## 16

IBK가 만난다  
마음을 움직이는 한 문장  
카피라이터 정철

## 22

IBK NOW  
관찰아 한 번 더!  
IBK인들이 힘내는 방법은?

## 30

IBK업글인  
몸과 마음을 성장시킨 8할의 힘, 요가  
내부통제총괄부 유희지 대리

## 38

IBK맛집노트 ④  
경기남부편

## 44

발길 닿는 길(국내편)  
기와집몰랑에 찾아온 말랑말랑한 봄  
여수 거문도

## 50

발길 닿는 길(해외편)  
알프스 하이킹의 '숨은 메카'  
스위스 융프라우

## 56

IBK산 ④  
실 수 있는 산, 유명산  
“어? 이거 쉬는 게 아닌데?”

## 64

IBK버킷리스트  
나무 도마에 새겨 넣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70

IBK핸드메이드  
식물을 예쁘게 담아 만든 나만의 화원  
경서남중여성심사센터

## 76

카툰으로 보는 역사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박두성의 '훈맹정음'

## 78

요즘, 시선  
인공지능(AI)의  
현주소

## 82

IBK히어로  
만든 이들의 땀이 쓰는 이들의 행복이 될 때까지  
카드마케팅부

## 94

히든캠피언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단한 탐구와  
노력으로 기술혁신을 일궈내다  
(주)에이프로

## 102

창공, 날다  
성공의 미래를 앞둔  
IBK창공 기업

## 106

사소한 꿀팁  
나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은?

## 110

우리말 한 걸음  
속보 경쟁이 낳은 오타자  
부끄러움은 독자의 몫

## 112

IBK뉴스  
이달의 뉴스

## 114

이달의 이벤트  
이달의 N행시 / 이달의 인증샷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2023년 4월 3일 발행인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조민정, 이승은 편집위원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홍보부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 힘내!”라는 말보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이  
더 위로될 때가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고민을 안고 부대끼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직장이, 누군가는 연애가,  
누군가는 자녀를, 누군가는 나 자신에 걱정하고 실망하며 말이다.  
하지만 조금 삐걱거리려도, 조금 느려도, 평범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세상에 완전히 틀린 건 없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제대로 된 시간을 가르키는 것처럼, 지금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 It's okay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배우거나 더 배우거나



## 실패와 좌절이 작가로서 삶의 동력이자 일부가 되고

‘WIN OR LEARN’ 이 격언을 알게 된 건 몇 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격언을 듣는 순간 즉시 지난 20여 년의 작가 생활이 내 머릿속에서 하이라이트 필름처럼 상연되었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이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배움일 뿐이지 실패나 좌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좌절이 작가로서 삶의 동력이자 일부가 되고 나서야 나는 제대로 된 글을 쓰게 되었으니까. 대학 졸업 후 처음 얻은 직장인 영화사 시나리오팀이었다. 한국 영화계가 호황인 시절이라 영화사에서 작가에게 월급을 주는 시절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시나리오 한 편을 썼는데, 곧바로 유명 배우가 캐스팅되어 제작이 결정되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송이 작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며 어깨에 뽕만 잔뜩 채웠다.

### 김호연 작가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연적》, 《고스트라이터즈》, 《파우스터》, 《불편한 편의점 1》, 《불편한 편의점 2》과 산문집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 《김호연의 작업실》을 펴냈고, 영화 <이중간첩>, <태양을 쏘라>의 시나리오와 <남한산성>의 기획에 참여했다. 작가의 대표작 《불편한 편의점》은 12권 통합 100만 부 판매를 기록한 밀리언셀러로 전국 35개 지역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알라딘, YES24, 밀리의 서재 유희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폴란드 등 14개국에 판권이 수출/출간되었고 현재 연극과 드라마로 제작 중이다.

# Win or Learn

2022년 가장 사랑받은 소설 『불편한 편의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 그에게도 20년의 무명 시절이 있었다. 힘들었던 시기 그가 버틴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쓰겠다는 김호연 작가에게서 듣는 ‘괜찮아, 한 번 더!’의 이야기.

글 김호연

끈기와 독기가 실력과 재능인 영역도 있다. 글쓰기가 그러했다. 이제 필요한 건 시간뿐. 나는 오래 하기로 마음먹었다. 인생의 끝까지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Aim

자만한 나는 영화사를 나와 1년 동안 혼자 세 편의 시나리오를 썼다. 혼자 쓰면 혼자 모든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명성도 생길 거라 여겼다. 무엇보다 나만의 이야기를 간섭받지 않고 쓰고 싶었다. 그렇게 완성한 시나리오 세 편을 20여 군데 영화사에 보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아니, 거절 답변도 받지 못한 곳이 대다수였다. 영화사에서 답도 할 필요가 없는 습작 시나리오들. 그게 내 현재란 걸 깨닫고 좌절했다.

하지만 나는 시나리오 쓰는 걸 멈추지 않았다. 좌절하기엔 극장에서 내가 쓴 시나리오가 영화가 되어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나만의 이야기를 영화라는 예술로 구현하는 것이 일이자 삶이자 로망임을 깨달았다. 다만 당장 시나리오를 써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다른 일을 구해야 했다. 그나마 글쓰기와 가까운 일을 구하려고 애를 써, 다행히 한 출판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실패의 순간을 되새겨 방향을 전환한 것**

출판사에서는 스토리 분야인 만화와 소설 편집을 하며 다양한 이야기 장르에 대해 배웠다. 퇴근 후 시나리오 쓰기에도 힘이 붙었다. 그렇게 4년의 직장생활을 보내고 다시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2007년 초, 퇴직 후 전업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퇴직금으로 작업실을 구하고 매일 작업실에서 끙끙대며, 2년간 다시 시나리오 세 편을 완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한 편도 팔리지 않았다. 영화계는 이미 불황이 찾아왔고, 그동안 실력이 늘었다고 여겼지만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것만 알게 되었다. 퇴직금은 바닥이 났고 생계 고민에 머리카락이 송송 빠졌다. 완전히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기분은 기분이고 할 일은 해야 했다. 포기하기에는 온 청춘을 바친 일이었기에, 아니 이제는 다른 일을 구하기도 늦은 나이이기에, 열심히 작가 일을 알아봐야만 했다. 그리고 운 좋게 한 유명 감독의 차기작 프로젝트 작가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흥행 불패 감독의 팀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다. 그간의 고생이 다 사라지고 대박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 작가 팀도 해체되었다. 2011년의 끝자락이었고 유독 추운 연말이었다.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때려치울 오만 가지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내 그간의 경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시나리오 작가가 유일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시나리오를 쓰는 것밖에는 없었다. 나는 배수진을 치고 다시, 썼다. 시나리오를 써서 지원사업에 당선되거나 각색 일을 얻어 시나리오를

썼다. 시나리오 쓰기는 이제 꿈보다는 생계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그때 내게 온 작은 깨달음이 있었다.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결국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기 위함인데, 시나리오를 써서 안 된다면 다른 이야기 매체를 통해 세상과 만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쓰려던 시나리오 아이템 하나를 소설로 완성해 한 장편소설 공모전에 제출했다. 그리고 당선되어 소설가가 되었다.

2013년 여름, 데뷔작 <망원동 브라더스>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잠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자리에도 오르며 화제가 되었다. 연말에는 영화 판권이 팔려 굵직한 살림에 잠시 별이 들었다. 그다음 해에는 연극으로 무대에서 재현되어 많은 관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시나리오를 쓰고 또 써도 안 되던 실패의 순간을 되새겨 소설을 쓰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자 성취였다.

**삶의 깃발과도 같은 글쓰기를 계속 펴려이기로**

그래서 소설만 쓰고 시나리오 쓰기는 접었냐고? 그럴 리가 없다. 소설가가 되고 데뷔작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음에도, 소설만 써서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란 말 그대로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나는 다시 시나리오를 써서 돈을 버는 한편, 남은 시간을 이용해 소설을 썼다. 깔끔하게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시나리오를 쓰면 돈은 벌지만 좀처럼 영화로 완성되지는 않아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없었고, 소설을 쓰면 어쨌든 책이 출간되어 독자들을 만나게 됐지만,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책이 팔리진 않았다. 두 분야를 오가며 악착같이 썼다. 둘 중 한 분야에서라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쓰기로 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설까지 2년에 한 번꼴로 출간을 했지만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얻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그 와중에 작업한

시나리오 하나가 영화로 완성되어 개봉했는데, 이 역시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아니 사실 언제까지 쓰고 또 쓰고 배우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지 두려웠다. 나이가 들수록 총명함과 집중력은 휘발되는 듯했고 필력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듯 자주 집필을 멈추게 되었다. 연이은 척추와 요추의 디스크 탈출은 글을 쓰는 물리적 행위조차 힘들게 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이란 곡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이 내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 해도 나는 계속 깃발을 들고 서 있을 것이다' 나라고 계속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는 시나리오를 쓰는 공허함이 없었을까? 고생 끝에 완성한 소설이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고역이지 않았을까? 쓰라리고 괴로웠다. 고독하고 막막했다. 좌절감에 치를 떨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배움일 뿐이지 실패나 좌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좌절이 작가로서 삶의 동력이자 일부가 되고 나서야 나는 제대로 된 글을 쓰게 되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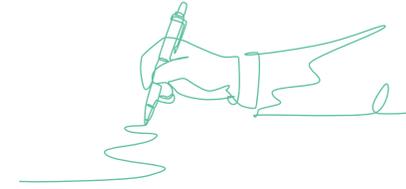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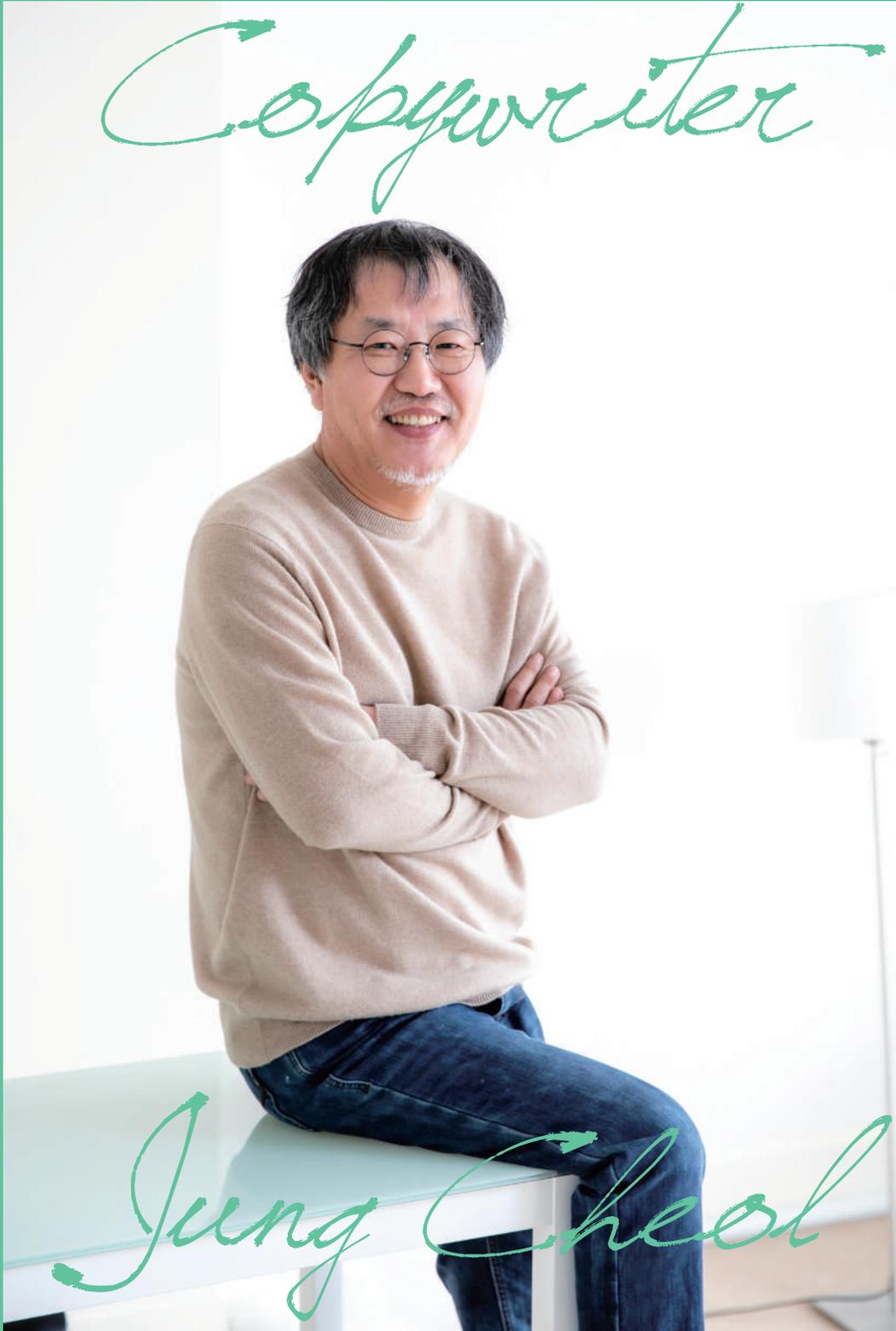
하지만 나는 내가 끝내지 않는 한 끝은 없다고 여겼다. 깃발을 계속 들고 서 있을 거라고 다짐했다. 실력과 재능이 부족하면 끈기와 독기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니다. 끈기와 독기가 실력과 재능인 영역도 있다. 글쓰기가 그러했다. 이제 필요한 건 시간뿐. 나는 오래 하기로 마음먹었다. 인생의 끝까지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콜드플레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삶의 깃발과도 같은 글쓰기를 계속 펴려이기로 했다.

**계속된 배움으로 스토리텔러의 삶을 지속**

2019년, 나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소설가로서의 내 정체성을 긍정하게 되었다. 스토리텔러. 우리말로는 이야기꾼. 이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채 소설과 시나리오 두 분야에서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시나리오 작가로 살 때는 소설가는 꿈도 꾸지 않았다. 소설가가 되고 나서는 시나리오 작가는 때려치우고 소설가로 잘나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 모두를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작가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가 잘 되면 하나를 그만둘 필요가 없이 양쪽 분야를 모두 쓸 수 있게 되었고, 두 배의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다시 시나리오를 쓰며 틈틈이 쓴 다섯 번째 소설이 2021년 봄에 출간되었다. 팬데믹의 봄에 조용히 등장한 그 소설은 해를 거듭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자 내 대표작이 되어주었다. <불편한 편의점>으로 받은 큰 사랑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잠시 넋이 나갔다. 이겼냐고? 소설이 잘 되어 시나리오는 이제 안 쓰냐고? 아니, 이 역시 배움이었다. 소설 쓰기가 생계의 주요 수단이 되었을 뿐이지, 시나리오 쓰기라는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결국 이기는 것도 배우는 것이다. 계속된 배움만이 스토리텔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배우거나 더 배우거나. 내게 시나리오 쓰기는 배우기였고, 소설 쓰기는 더 배우기였다.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배우고 더 배운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승리 그 자체다. 건투를 빈다.

# Achievement



마음을  
움직이는

한 문 장

카  
피  
라  
이  
터  
정  
철

연필 들고 영감 만드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서서히 흰 수염 영감이 되어 간다는  
36년 차 카피라이터 정철. 오전에는 카피라이터, 오후에는 선생, 저녁에는 작가로서  
끊임없이 쓰고 닦고 뒤집어엮으며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건넨다.

글 강일서 사진 김경수



**Q. 원래 소설을 쓰는 게 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35여 년 전 카피라이터라는 직업도 생소했을 텐데, 어떻게 카피라이터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모 대기업에 가기로 결정하고 학교 정경대 사무실에서 오른쪽을 보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왼쪽을 봤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른쪽 벽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피라이터 추천. 이 일곱 글자가 눈에 확 빨려 들어왔습니다. 카피라이터라는 말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카피는 뭔지 모르지만 라이터는 뭔가 글 쓰는 일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글을 쓰며 살고 싶었는데, 글 써서 밥 먹고 사는 직업이 많지 않아 회사원이 되기로 결정한 터였으니까요. MBC에 드컴이라는 광고대행사였는데 카피가 뭔지도 모르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기로 한 곳 면접과 이곳 시험이 한날한시로 딱 겹쳤지 뭐니까. 다들 대기업에 가라 하는데, 저는 카피라이터가 자꾸 궁금한 겁니다. 저질러버렸지요. 결과는 꼴찌로 합격.

카피라이터 정철이라고 적힌 제 인생 첫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낮엔 대행사에 출근해 돈을 벌고, 밤엔 집에서 소설을 쓰려 했습니다. 1년쯤 일 해보고 알았습니다. 제 글이 소설보다 카피에 더 어울린다는 것을. 그때부터 왜 내가 꼭 소설을 써야 하지? 소설은 조정래 선생님이 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카피에만 35년 매달려 온 것입니다.

**Q. 대중들에게 위로를 주고, 공감되는 카피들이 많은데요. 카피를 쓰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가장 힘 있는, 가장 울림이 큰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뒷담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죠? 늘 사람 이야기지요. 사람 이야기가 가장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사람에게서 이야깃거리를 찾으려 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술맛의 10%는 술을 빚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90%는 마주

앉은 사람입니다.”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취하는 거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카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품이나 기술에 10% 시선을 준다면 그 제품을 사용할 사람에게 90% 시선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더 공감 가는 카피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카피도 그렇게 나온 카피일 것입니다.

**Q. 작가님도 카피(글)가 안 써질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글이 밥알처럼 끈두서지 못하고 자꾸 몽개질 때. 흐물흐물 흐느적거릴 때. 그럴 때 제 해결책은 일과 싸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 아니다 싶은 순간 퇴근입니다. 물론 일찍 퇴근한다고 일과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섬주섬 퇴근을 챙길 때 하던 일 일부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저랑 함께 퇴근합니다. 술자리에도 동행합니다. 술에 물 입하고 싶은데 자꾸 말을 겁니다. 아까 그 문장, 이렇게 바꾸면 어때? 통째로 날려버리면 어때? 심지어 잠자리까지 따라와 꿈속에서 불라블라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퇴근했지만 완전한 퇴근은 아닌 셈이지요. 제게 퇴근은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발효되고 숙성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퇴근 후에 더 좋은 문장을 건지기도 합니다.

**Q. 카피라이터는 대중들의 취향과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저는 지독한 아날로그 사람입니다. 아날로그 주제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겠다고 쫓아다니다간 심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 모든 제품을 다 이해하고, 세상 모든 제품 카피를 다 쓰겠노라 나서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무리를 낳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해도 내 카피는 이 맛이야! 나는 이렇게 선언하고 제게 맞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 저는 후자입니다.

**Q. 일하시면서 힘들었을 때가 있으셨는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일보다는 사람이 힘든 거지요. 사람 스트레스. 누구나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사람이라는 문제는 사람이라는 답으로 풀어야 합니다. 제 곁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한 번 볼 때, 그 따뜻한 사람들을 열 번 봤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Q. 다양한 저서도 많이 내셨는데 IBK 독자들에게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카피책>입니다. 짧은 글로 사람 마음을 훔치는 방법을 써놓은 책입니다. 누구나 카피라이터처럼 글을 쓰게 해주는 책입니다. 예전엔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말투나 명함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사람의 글이 곧 그 사람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만남이 잦아지며 글에서 도망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글 한 줄이 호감을 비호감으로 순식간 바뀌버리기도 합니다. 여차피 써야 한다면 잘 써야겠지요. <카피책>은 이 일에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판돼서 4월 중순 이후에 개정판이 나옵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몇 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합니다(웃음).



**Q. 오랜 경력만큼 다양한 후배, 제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하면 잘했어. 괜찮아. 힘내. 이런 공허한 말 몇 마디가 위로될 수 있을까요? 위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내 안에 담아두지 않고 입 밖으로 내 보내면 조금씩 풀리고 누그러집니다. 그러니 잘 들어줘야 합니다. 들어주는 눈빛과 표정과 태도에서 진심이 보여야 합니다. 저는 잘 듣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Q. 카피라이터로 35여 년, 대체 이 직업의 달고 쓴 매력은 무엇인가요?**

아침엔 껌 팔고, 점심엔 옷 팔고, 저녁엔 술 팔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집 팔고... 팔고 팔고 팔고가 정신 없이 이어지는 것이 카피라이터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것이 카피라이터를 그만두는 이유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카피라이터로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껌장수가 되었다가, 옷장수가 되었다가, 술집 주인이 되었다가, 건설회사 과장이 되었다가... 세상 모든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피라이터의 가장 큰 매력은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

**정철이 IBK 매거진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번 호 주제가 '괜찮아, 한 번 더'라고 들었습니다. 주제에 걸맞은 글 하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실패했다.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보지 마세요. 뒤에 있는 두 글자를 보세요. 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을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with  
202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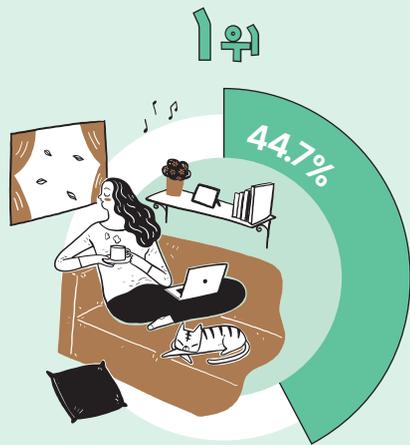


# 관찰아 한번 더! IBK인의 힘내는 방법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다. “포기하면 편해”라는 유행어처럼 쉽게 포기할까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는 건 꿈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IBK인들은 힘이 들 때 어떻게 힘을 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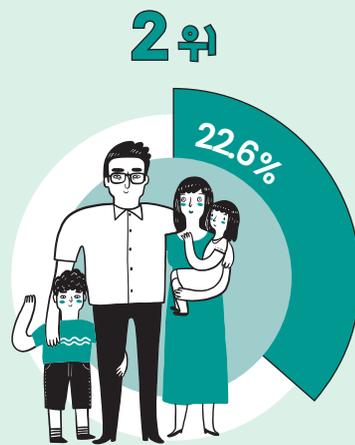
정리 편집실

IBK인의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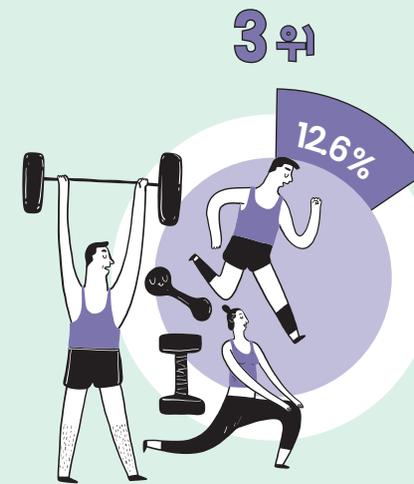
## 취미와 휴식

IBK인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 1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거나 편안하게 쉬는 것이었다. 취미생활에 열중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잔뜩 시켜놓고 영화를 보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편안하게 푹 쉬기도 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



## 가족과 친구

지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건 역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뿐이다. 힘든 시간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친구나 동료들과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잊기도 하고, 자녀들을 보면서 끝까지 버텨내기도 했다.



## 운동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땐 역시 몸을 단련해야 하는 걸까? 운동을 통해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IBK인도 많았다. 등산, 러닝, 헬스, 수영, 자전거 라이딩, 요가 등 그 종류도 많았다.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에서 IBK의 건강한 미래가 엿보인다.



## 자기계발/마인드셋

힘들 때일수록 자기계발에 몰두하며 에너지를 얻거나, 생각만으로 자세를 고치고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IBK인도 있었다. 어려운 상황을 모두 이겨낸 자신을 상상하거나, 과거 더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상황을 이겨내는 IBK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 IBK인의 한 번 더!



저는요~ 필사와 감사일기를  
쓰며 힘겨운 순간을  
이겨냈어요~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김윤영



잡념이 많은 시기에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들과의 자전거 라이딩 및 전국  
일주로 잡념을 지웠습니다.  
안동지점 박지훈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시기,  
방황의 나날 속, 어두운 터널에  
같은 그 시간. 내 집 안방에서  
주5회 필라테스로 근육과  
소통하며 극복!

반포자이WM센터 조화연



지나고 보니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지점 류혜원



1. 지금 힘든 시기도 지나고 나면 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시기가 올것이다라는 생각
2. 난 누구보다 잘할수 있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
3.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
4. 마지막으로 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

역삼중앙지점 김민정

신용평가 및 여신진행 등 해야  
할 일이 쌓여있어 가끔은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행에 있는 저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높아진  
금리와 아직 한참 많이 남은 잔액을  
보니 저절로 힘이 났습니다.

계양지점 주요한



가끔 번아웃이 올 때면  
등산을 해요. 땀 뚫린  
곳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목동WM센터 남은예



모든 투자가 반로막이 났을 때  
좌절의 시기를 보내다가 무해한  
조카와 더 무해한 고양이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ㅎㅎㅎ

금융소비자보호부 박나영

힘들었던 시기에 전환점을 위해 당행  
연수신청을 했습니다! 예비PB전문역  
면접을 보고 합격해 한국금융연수원  
6개월 연수를 받아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계동WM센터 조미연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마라톤!

외환마케팅팀 김동희



일상의 루틴을 간결하게 하고 철저히 지킨다.

1. 하루 세끼 잘 챙겨먹기(건강식으로, 절주)
2. 일찍 잠자리에 들고 8시간 이상 자기
3. SNS 안 하기
4. 매일 10km 이상 움직이고 탁걸이 하기

혁신금융부 김용범

힘들었던 군대생활 마음속깊이 진정 못 견딜만한  
고통인가 되뇌어보면 이겨낼 힘이 생겼다. 시진은  
입을 앓다문 9개월 된 아들입니다.

공도지점 황지민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상하게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콘서트도 다니고 문화생활 많이 즐기고 매  
순간 나를 위해 투자하고 살아!"라는 선배의  
말씀에 콘서트를 예매해서 신나게 놀고  
즐거웠습니다. 일과 집을 반복하던  
일상의 틀을 깨고, 소소하게나마  
나를 아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더  
어유로운 마음으로 일과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던 큰 경험이었습니다.

김해장유지점 방희정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혼자만의 힐링타임~  
하루라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당일치기라도  
여행을 해요~

송현동지점 권정자



맛있는 커피가 있는  
카페에 혼자가서  
책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달성공단지점 이정은



학창 시절부터 매일 적었던 일기장. 몹쓸 습관 덕분에 입학 후에도 IBK 다이어리에 일기 대신 간단한 일과를 매일 작성해보았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할 일,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과 좋은 글귀 한줄을 적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적다 보면 힘들고 고된 하루를 '오늘도 참 알차게도 애썼다'하고 나에게 토닥토닥 해주는 응원 같아서 힘이 나기도 했다.

삼성역지점 이수경



고립되어 있고 우울한 마음이느낌이 들때 뽕뽕린 경치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은 양평의 한 카페인데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곳이라 소개합니다.

제천지점 정승찬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때입니다. 힘들지만, 거짓말 안 하고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아들과 여행도 다니고, 혼자 커피숍 가서 멍때리기, 친구들과한테 하소연하기! 그리고 플렉스하기!

오창지점 이유경



**역시 가족!!**  
가족들 얼굴과 행동에  
가장 무거운  
내려놓습니다^^!  
양재동지점 한완수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던가 맛집투어를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연인과도 함께 깊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등 아무래도 여행을 다녀오며 마음의 힐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다시 찾아와도 혼자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삼송테크노지점 이혜민



아프면 약~ 더 아프면 술 한잔에~ 한 모금에 스트레스 한 줍이 싸악 씻겨 내려갑니다~ ㅋ

일산상석지점 정지영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랑스런 아이들~ 아이들 유아기 때 육아와 업무 병행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잘 이겨냈습니다.

중계동WM센터 이선향



with IBK



지점 경쟁실적이 안 좋은 항목이 생겨 많은 고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모아 겨우 헤쳐나간 시기. 일상을 잠시 잊어던 타임으로 여행이

너무 좋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네요. 물론 같이 이겨내준 동료들의 힘과 땀, 노력을 잊지 못하구요.

문래중앙지점 이미혜

큰 딸아이 태어나 선천성 심장판막(승모판탈출) 진단받고 수술과 자연치유의 선택을 해야 했는데, 평생 여자아이 몸에 수술 흔적을 남기고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지 시간+돈과의 싸움으로 할 건지 결정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부모 입장을 버리고 딸아이 입장에서 자연치유로 결정했고, 15년 만에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과객부 권영탁



스트레스로 인해 혼자 올라간 절에서 본 기왓장에 그린 그림-글을 보면서. 김해장유지점 김혜진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차분히 글로 써 추억하기. 마음 토닥임!!

죽전지점 정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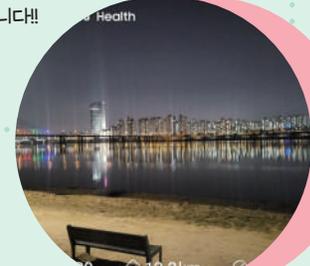
**신입행원 시절, 퇴근 후 잠이 안오는 밤에는 아끼는 인형을 앞에 놓고 혼자 속상했던 일 털어놓고 술 한 잔 하면서 기분 풀었습니다~!**

잠실지점 강그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우울할 때는 맛집에서 사치도 부러웁니다. 나를 위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회사 동기들을 만나 힘들음을 나눕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받고 감사할 일이 있는기에 집중합니다. 든든한 기업은행 동지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코로나 19로 인해 지인, 직장 동료, 친구를 자주 못봐서 아쉬웠습니다. 가끔 소규모 인원이 만나 작은 모임자리 갖으며 코로나 해소를 꿈꿨습니다.

수색지점 조보경



너무 깊게 생각에 사로잡히려 하지 않고 최애 치킨에 맥주 한 잔으로 씻어내리기!

의환사업부 김지원



웃어주는 강아지에게 위로 받았어요! 거제지점 김한홍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과거의 더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며 인내하며 이겨냄. 특히 힘들었을 때는 안좋은 일들이 동시에 터졌을 때가 있었는데 결국엔 한가지씩 해결해가면서 이겨냄. 힘든 일 극복도 Step by step! 평택고덕지점 하영범



최근 저의 업무 실수 때문에 업체에서 뭐라고 해서 하루종일 우울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인데도 그렇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아주 많이 울적하더라고요. 그러다 퇴근길에 예쁜 고양이들을 봤는데 고양이들이 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세상 편한(?)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서 위로받으려고요!! 추천합니다~ 천안지점 임한별



마음이 유난히 힘들던 지난여름, 운동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극복하였습니다.

반월중앙지점 오민정

월화수목금 정신없이 일하고 주말에는 뷰 좋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휴식합니다. 서교동지점 장상민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하며 대화하면서 마음의 집을 내려 놓는다.

천안지점 배용환

가장 힘든 시기 입학 동기들과 맛있는 저녁 같이 먹고 수다 떨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용산중앙지점 홍혜진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재난지원금 나온 길로 필살기 하다 가족 모두 자전거를 사서 아이들과 자전거 타고 한강, 팔당댐 라이딩을 많이 다녀왔네요. 맑은 공기도 마시고 중간중간 내려 맛난 것도 먹고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낸 거 같아요. 자전거라이딩 정말 강추합니다^^ 하남지점 정소영



유일하게 하는 운동인 수영을 다녀옵니다. 물 바깥 세상은 소음과 각종 스트레스로 범람 하는데 물 속 세상은 그저 제가 코로 내뿜는 숨으로 생긴 보글보글 소리만 나지요. 그 소리는 어지러운 마음을 말끔하게 정리 해주는데

탁월해요. 박세계 물질 하다가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 버터넬 힘과 에너지가 원충됩니다.

강남기업금융센터 박민선



힘들 때마다 꽃사진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봄에는 꽃이 핀다라는 마음으로 이겨냈어요. 매년 나만의 원동력이 될 꽃놀이 가는 건 필수! 광주WM센터 박은지

서울로 상경하고 힘들어서 격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운동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크로스핏 최고! 역도 최고!

사당역지점 송한솔



감사일기 쓰기, 내가 잘한 일 써보기. 경남지역본부 유은주



# 몸과 마음을 성장시킨

## 8할의 힘, 요가

내부통제총괄부  
유희지 대리

자세가 무너져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요가를 통해 삶의 활력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은 IBK인이 있다.  
바로 내부통제총괄부의 요가 전도사  
유희지 대리다. 요가를 하며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의 이야기를 전한다.  
다 같이 외쳐보자, 나마스떼.

글 김이래 사진 이대원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꾸준하지 않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유희지 대리는 행내에서 이미 유명한 요가 고수다. 몸을 써서 하는 모든 활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그는 대학교 2학년 시절 요가를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수련을 이어왔다. 이후 파워하우스 코어와 하체 강화를 위해 필라테스까지 섭렵했다.

“방학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집 바로 앞에 있던 요가원을 친구와 함께 다녔던 게 첫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는 Gratz 기구를 사용하는 로마나 필라테스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민망하지만 추천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꾸준히 수련을 이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고수라는 단어에 내심 부끄러워하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 요가를 수련하며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얻은 건강한 몸과 마음은 그의 자랑이기도 했다. 로마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 거주지인 서대문구에서

서래마을까지 왕복 3시간에 걸친 레슨도 마다하지 않았던 열정으로 기초는 빠르게 잡혀갔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은행 인턴 시절, 지원자에 한해 관심 분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기본적인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 몇몇 동작을 소개했었습니다. 신입 행원 연수에서도 매일 오전 7시마다 동기들이 요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유희지 대리가 생각하는 요가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꾸준함이다.





잘 되던 동작도 며칠만 쉬면 전처럼 잘 나오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희지 대리 역시 하루에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요가에 쏟는다.

“요가는 꾸준하지 않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원래 되던 동작이 되지 않거나 부정확해지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가 동작 중 제일 좋아하는 동작인 왕비둘기자세(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는 전신을 사용하는 동작이면서도 허리도 강화되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동작입니다. 쉬운 동작들로 몸을 풀고 왕비둘기자세까지 꾸준히 시도하고 있어요.”

또한 필라테스도 흥내 내는 것만으로는 운동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필라테스의 동작을 대충 수행하게 되면 쉽겠지만 각 동작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방법대로 수행해야만 온전한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요가에 쏟아왔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상체 근력이 강한 편이 아니다 보니 강력한 상체 힘이 요구되는 동작들은 수행하기 어려웠다. 또 경력이 길어도 신체 구조 등을 이유로 절대 할 수 없는 동작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한계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 역시 요가 수련의 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요가가 마음을 수련하는 운동으로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함께하면 더 즐거운 운동

요가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는 점이다. 유희지 대리 역시 대학생 때 다녔던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만나 또래 언니와 친해져 지금까지도 필라테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어제도 언니와 만나서 운동을 하고 왔어요. 요가와 필라테스만큼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스포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가수 이효리의 요가 스승으로 잘 알려진 한주훈 선생님의 공간에서 수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가는 꾸준하지 않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원래 되던 동작이 되지 않거나 부정확해지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요가 고수들을 보며 자극도 받고, 같이 으쌰으쌰하며 해내는 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유희지 대리는 요가를 통해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타요가를 한창 수련했던 때, 머리서기 자세(시르사아사나)를 성공했을 때 느꼈던 부듯함은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코어 힘도 부족해 벽 근처에서 벽의 힘을 빌려 다리를 공중에 띄우는 연습을 했는데 반복하다 보니 벽이 없어도 완전한 머리서기 자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은 그의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제게 요가란 ‘제2의 엄마’인 것 같아요. 너무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자기관리에 엄격한 편인데 요가를 통해 영감이었던 생활 습관도 바로잡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한층 성숙하고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처럼 요가 역시 저를 키워줬다는 생각이 들어 ‘제2의 엄마’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 정답이 없는 요가의 매력

요가에는 정답이 없다. 요가 수트라(yoga sutra)의 제1장 2절에 ‘요가란 마음의 작용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요가는 마음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억제하여 인간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고 멋있는 동작이 아닌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 몸을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그 자체로 요가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동작을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다 보면 근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요가를 통해 얻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강의를 진행해보고 싶어요.” 인턴 때와 신입 행원 연수 때 동기들에게 요가와 필라테스를 전수해주었다는 유희지 대리는 IBK의 전 직원들이 요가와 필라테스를 통해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모두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삶의 큰 활력이 될 요가와 필라테스를 통해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영위해보는 것은 어떨까?



## IBK 업글인이 알려주는 꿀팁

①

### 요가와 필라테스, 어떤 것을 선택할까?

요가의 경우는 신체의 수련을 통해 자기 내면까지 단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성취만큼이나 정신적인 성취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하지만 필라테스는 재활이나 교정이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허리 통증, 목 통증 등의 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②

### 초보자라면 매트 두께

부상을 방지하고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게 해주는 요가 매트는 두께가 가장 중요하다.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짐볼 운동을 할 때는 두꺼운 두께의 매트가 좋다. 반대로 고난도의 요가를 할 때는 4~6mm 정도의 두께의 요가매트가 적당하다.

③

### 친환경 매트에 주목!

요가 매트에는 사람의 손이 많이 닿고 얼굴이 직접 대는 일도 있어 최근에는 친환경 매트가 주목받고 있다. 만약 피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TPE(열가소성 탄성 중합체) 재질의 매트를 사용해보자. TPE 재질의 매트는 복원력과 충격 흡수가 좋으면서도 수분흡수가 적어 세균 번식 위험이 낮아 피부 건강을 지키기에 좋다.

# 우리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

경기 남부편



경기도 남부에도 숨은 맛집이 많다. 서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우리가 직접 만드는 맛집 족보! 이번 달엔 무얼 먹어볼까?

글 편집실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goodskim)

##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간 개성상항버섯삼계탕

삼계탕에 상항버섯까지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진한 국물이 예술이다.

- 초석집 돼지감자 상항버섯 삼계탕 15,000원
- 안성맞춤대로 838
- 031-675-8808

## 2대째 이어온 폐계닭 전문점 군계폐계닭

알을 낳기 힘들어진 폐계를 환상적인 양념으로 다시 살려놓는 맛집.

- 폐계닭 15,000원
- 자유로 22
- 031-652-7430

## 오래된 돼지고기 맛집 김진순숯불겹데기

1995년 시작한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아들이 맛을 이어가고 있다.

- 주먹고기 14,000원
- 남양읍 역골동로 5-2
- 0507-1324-235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리뷰는술집허게맛은워대하게)

## 두루치기 김치찌개 맛집 광명돼지집

생삼겹살집인데 통돼지두루치기와 양파를 가득 넣은 김치찌개가 유명하다.

- 통돼지두루치기 20,000원
- 가림일로 55
- 02-898-8945

## 여기 추천인가요? 김래하닭갈비

춘천에서 공수해 온 냉장닭으로 만드는 신선하고 맛있는 닭갈비.

- 닭갈비(1인분) 15,000원
- 영통구 청명남로50번길 21-1
- 0507-1320-0906

## 자연을 담은 건강한 밥상 꽃누리들밥

신선한 보리굴비와 황금 간장게장이 일품인 한식 전문점.

- 꽃누리 들밥 정식 12,000원
- 검단로 71
- 031-795-3999

## 제대로 된 손만두 다원맛집

매일 국산 재료로 만두를 직접 만들어 만두전골과 만두국이 끝내준다.

- 만두전골 12,000원
-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67
- 0507-1343-1252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현강63)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엘비비키4944)

## 콩보다 해물이 더 많은 남부아구찜

찜과 탕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 다 먹은 뒤에 볶음밥은 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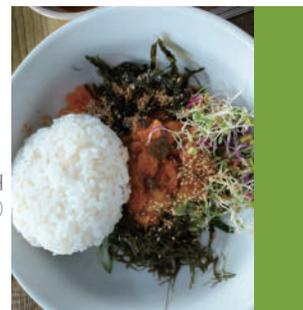
- 아구찜(소) 38,000원
- 행정타운로 6-5
- 031-768-1133

## 입맛을 살리는 명계비빔밥 대부도산꽃게낙지매운탕

매운탕, 꽃게탕, 갈치조림까지 모두 맛있는데 명계비빔밥은 꼭 먹어야 한다.

- 명계비빔밥 12,000원
- 필탄면 3.1만세로 776
- 031-354-7478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Truck일번지)



IBK맛집노트

제주근고기 맛집

**돈델**

목살과 삼겹살. 자신있는 부위만 제대로 판매하는 직화구이 맛집.

- ☎ 제주근고기 56,000원
- 📍 분당구 느티로63번길 6
- ☎ 031-718-0092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머스타드컵)

가족 나들이 장소

**두오즈**

김치찌개 맛집인데, 찻집도 같이 운영한다. 주차도 편해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

- ☎ 김치찌개백반 8,000원
- 📍 장안면 한천1길 32-7
- ☎ 031-358-3670



목살 하나로 승부한다

**돼지공방**

돼지 목살 맛집으로 유명해진 맛집이다. 소란스러운 선술집 분위기는 덤이다.

- ☎ 두툼목살 15,000원
- 📍 양지로184번길 7-4
- ☎ 032-343-0123



간장에 담긴 밥도둑

**석일식당**

메뉴가 간장게장과 주꾸미볶음뿐이다. 한 입 맛보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 ☎ 간장게장 45,000원
- 📍 중앙로 209-1
- ☎ 031-652-9101



생선이 맛있는 이자카야

**숯불구이 연**

모든 메뉴가 맛있는 일본식 선술집.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오늘의 생선.

- ☎ 오늘의 생선 (변동가격)
- 📍 동안구 인덕원로16번길 25
- ☎ 0507-1430-9284



이 동네 정육식당 원탑

**미담축산**

17년 경력의 축산업 경력으로 한우와 한돈의 최상급 부위를 선별해준다.

- ☎ 아랫등심 (변동가격)
- 📍 평택시 원평로 37
- ☎ 010-8600-7091



이 동네 정육식당 원탑

**미담축산**

17년 경력의 축산업 경력으로 한우와 한돈의 최상급 부위를 선별해준다.

- ☎ 아랫등심 (변동가격)
- 📍 평택시 원평로 37
- ☎ 010-8600-7091



제대로 된 오마카세

**스시쇼우민**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오마카세 맛집이다. 중요한 손님과 함께라면 강추.

- ☎ 디너 120,000원
- 📍 분당구 운중로125번길 14-10
- ☎ 031-781-8070



신선한 제철 생선회

**신화수산**

제철 생선을 중심으로 판매해 신선도가 뛰어난 횡집으로, 사시사철 손님이 많다.

- ☎ 모듬회 50,000원
- 📍 만안구 냉천로 196
- ☎ 031-441-9005

맵고 짭맛의 정석

**미락식당**

맵고 짜고 맛있는 두루치기 맛집이다. 맵짤이라면 순한맛도 고를 수 있다.

- ☎ 돼지두루치기 12,000원
- 📍 단원구 고잔2길 71
- ☎ 031-487-5678



삼겹살에 비빔국수

**밴댕이천국연탄구이**

삼겹살 맛집인데 비빔국수 레시피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더 많다.

- ☎ 스테이크 삼겹살 11,000원
- 📍 향남읍 배터길 4-2
- ☎ 031-353-0115



뜨끈한 대구탕 한 그릇

**신향산별**

대구탕과 알탕이 맛있는 성남의 맛집. 차림새보다 맛에 더 신경쓰는 곳이다.

- ☎ 생대구탕 30,000원
- 📍 수정구 달래대로 40
- ☎ 031-708-9898



냄비에 담은 바다

**심스조개전골칼국수 수원고색역점**

싱싱한 조개를 정성껏 해감해 바다향이 가득한 전골 한 그릇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 ☎ 조개전골(2인) 46,000원
- 📍 권선구 매송고색로 668
- ☎ 031-292-7070



허영만의 복어맛집

**복진면**

허영만의 <식객>에 소개된 복어 맛집으로,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 ☎ 복지리 17,000원
- 📍 독정미길 28
- ☎ 031-426-5812



만두, 불고기, 닭갈비

**부자집**

만두전골, 불고기전골, 닭갈비 3가지 메뉴 모두 맛있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

- ☎ 불고기전골 15,000원
- 📍 별양상가로 10
- ☎ 02-504-5656



특별한 한 끼

**옥상식당**

특별한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이곳. 다양한 국적의 메뉴들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 ☎ 마제멘 10,000원
- 📍 산본로323번길 10-14
- ☎ 031-396-5435



장작구이 촌고기

**정든집**

삼겹살, 오겹살, 목살, 앞다리살을 참나무 장작에 구워서 나오는 숨은 맛집이다.

- ☎ 촌고기 17,000원
- 📍 상록구 남산평길 119
- ☎ 031-437-2678

전라도식 해산물 맛집  
진도식당

전라도식 해산물 요리  
맛집이다. 흑산도  
홍어삼합과 전어,  
묵은지가 맛있다.



- ☎️ 삼합 130,000원
- 📍 단원구 광덕대로 187
- ☎️ 031-402-8262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진진삼계탕

토종닭과 상항버섯이 들어간  
닭백숙이 유명하다.



- 📍 상항누룻지닭백숙 50,000원
- 📍 서울대학교278번길 19-14
- ☎️ 031-433-2257

가성비 좋은 평양맛집  
평양원

수원을 대표하는 평양냉면  
전문점으로 만두도 기가  
막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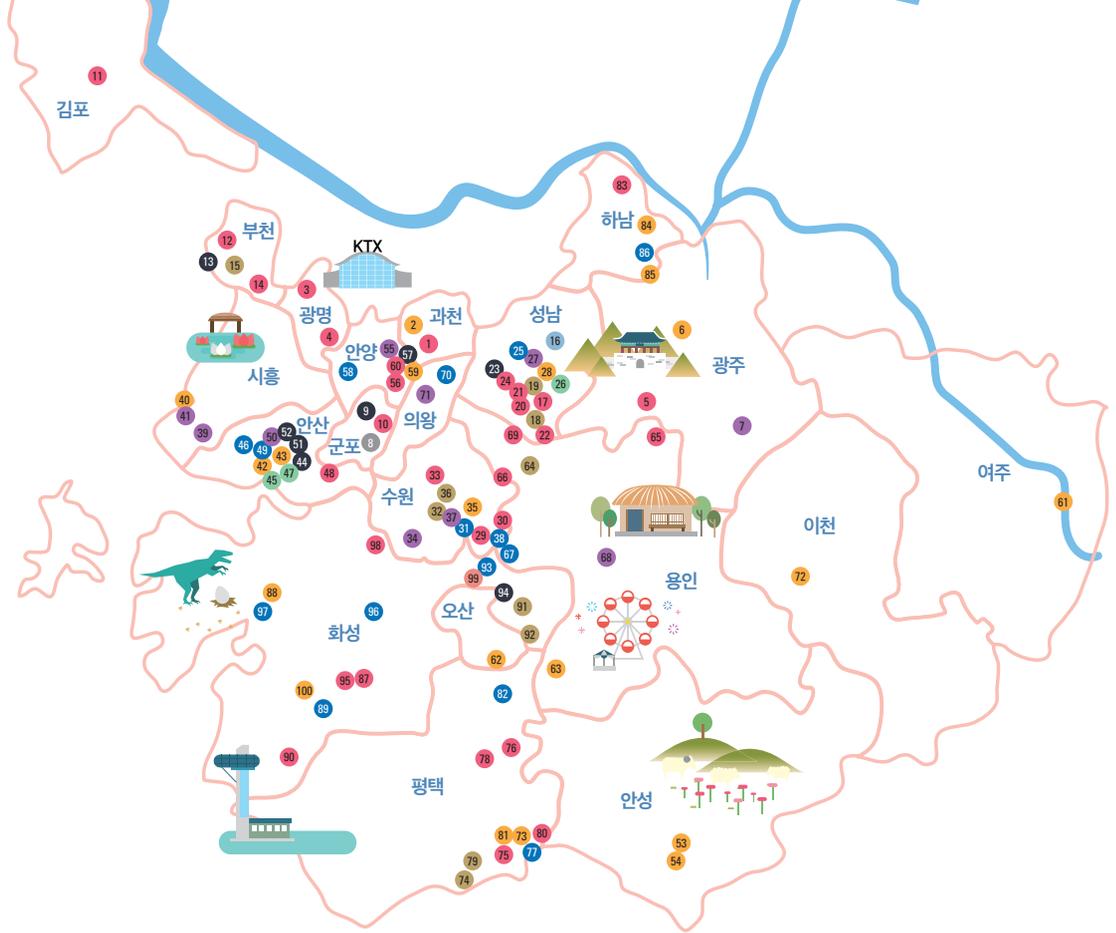
- ☎️ 평양냉면 10,000원
- 📍 필달구 인계로108번길 23
- ☎️ 031-221-7003

돼지고기 특수부위의 정답  
황소고집

돼지고기 특수부위가 맛있는데,  
특히 통갈매기살이 인기가 많다.



- ☎️ 갈매기살(500g) 31,000원
- 📍 수지구 고기로 104
- ☎️ 031-266-8329



● 한식 ● 분식 ● 육류 ● 해산물 ● 카페 ● 면류 ● 아시아 ● 일식 ● 중식 ● 양식

IBK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경기 남부의 맛집 리스트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b>과천</b>				
1	부앗집	육류	별양상기1로 10	02-504-5656
2	통나무집	한식	새솔막길 38	02-503-9555
<b>광명</b>				
3	광명돼지집	육류	가림일로 55	-
4	오늘은스갈비살	육류	일직로 72	02-897-7588
<b>광주</b>				
5	광릉불고기 오토점	육류	오토로 882	031-761-3362
6	남부아구찜	한식	행정타운로 6-5	031-768-1133
7	동동국수	면류	곤지암읍 도척로 20	031-798-4224
<b>군포</b>				
8	명광봉	중식	상성로 5	1899-5266
9	육상식당	일식	산분로323번길 10-14	-
10	중구만	육류	당동로7번길 6	031-395-9292
<b>김포</b>				
11	한성치킨	육류	양촌읍 석오로73번길 85	031-989-2744
<b>부천</b>				
12	260도 부천점	육류	신흥로 178	032-655-0260
13	돈까스온기	일식	송내대로74번길 23	-
14	돼지곱창	육류	양지로184번길 7-4	032-343-0123
15	스플리아	양식	신흥로 170-1	010-2270-7505
<b>성남/분당</b>				
16	덕밭장	분식	중원구 양현로 411	-
17	돈앤	육류	분당구 노티로63번길 6	031-718-0092
18	할루차 찜자집	양식	분당구 정자일로 136	031-716-3222
19	리스카페	양식	분당구 반교일로2번길 29	010-6654-6300
20	미담	육류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9-13	031-711-0774
21	미담 찜자집	육류	분당구 노티로 16	031-711-7787
22	분당그릴	육류	분당구 미금일로74번길 13-3	031-713-0342
23	스시쇼유민	일식	분당구 운중로125번길 14-10	031-781-8070
24	스테이크레스토랑나인	육류	분당구 운중로146번길 19-3	-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25	신항산별	해산물	수정구 달래내로 40	031-708-8998
26	오리엔탈가든	아시아	분당구 서현로239번길 1	-
27	장원막국수	면류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4	031-707-5855
28	최내부대찌개	한식	분당구 분당로53번길 15	-
<b>수원</b>				
29	구들평향소곱창 영통점	육류	영통구 영통로218번길 6	031-205-9523
30	김래하닭갈비	육류	영통구 청명남로50번길 21-1	-
31	미니미참치	해산물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61	031-225-3737
32	솔리핑테이블	양식	팔달구 신봉로23번길 51-10	031-255-3723
33	신사강정육점식당	육류	장안구 정조로1088번길 11	031-247-5454
34	심스즈개천굴칼국수 (수원고색역점)	면류	권선구 매송고색로 668	031-292-7070
35	육유정	한식	영통구 매어울로52번길 2	031-253-5577
36	존앤진피자점	양식	팔달구 정조로905번길 27	010-7514-5189
37	평양원	면류	팔달구 인계로108번길 23	031-221-7003
38	해식	해산물	영통구 청명북로7번길 22	031-205-1266
<b>시흥</b>				
39	송가네막국수	면류	정왕천로408번길 23-1	031-499-3221
40	진진삼계탕	한식	서울대학교로278번길 19-14	031-433-2257
41	파주닭갈국수	면류	서울대학교로278번길 61	031-488-8250
<b>안산</b>				
42	경희네소머리국밥	한식	단원구 광덕서로 106	031-401-8669
43	미락식당	한식	단원구 고잔2길 71	031-487-5678
44	스시일기	일식	단원구 고잔2길 69	031-503-2486
45	에이앤크림안산점	아시아	단원구 광덕서로 66	010-2659-9899
46	원조 개장정식	해산물	단원구 부부로3길 23	031-494-7330
47	인디아델리스	아시아	단원구 중앙대로 921	031-411-2203
48	정돈집	육류	상록구 남상평길 119	031-437-2678
49	진도식당	육류	단원구 광덕대로 187	031-402-8262
50	칠보네집	면류	단원구 원고잔로 15	031-483-8058
51	카츠오미안산중앙점	일식	단원구 고잔로 72	-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52	키무스시	일식	단원구 고잔2길 38	031-411-0803
<b>안성</b>				
53	개성상항버섯삼계탕	한식	안성읍충대로 838	031-675-8808
54	큰집촌천닭갈비	한식	서문로 828	-
<b>안양</b>				
55	관악관	면류	동안구 평촌대로 367	031-385-6402
56	다로갈비 평촌점	육류	동안구 관평로186번길 49	031-386-8710
57	숯불구이연	일식	동안구 인덕원로16번길 25	0507-1430-9284
58	신화수산	해산물	만안구 냉천로 196	031-441-9005
59	오름	한식	동안구 인덕원로24번길 14	031-360-3927
60	평촌통고기	육류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8	031-383-2609
<b>여주</b>				
61	송백보리밥	한식	강천면 장문로 267	031-883-1257
<b>오산</b>				
62	오산돼지기집 분식	한식	오산로190번길 16	031-372-1767
<b>용인</b>				
63	다원맛집	한식	차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67	-
64	라스마가리타스	양식	기흥구 죽전로15번길 15-8	031-889-4343
65	미운오리	육류	차인구 모현읍 백목대로 2561	031-339-4871
66	삼길	육류	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031-216-7557
67	샛별자연산채어탕 영통점	해산물	기흥구 덕영대로 1664	031-202-1080
68	아리랑 중심이매밀칼국수	면류	차인구 용문로 62	-
69	황고집	육류	수지구 고기로 104	-
<b>의왕</b>				
70	복진점	해산물	독정이길 28	031-426-5812
71	봉평메밀떡막국수	면류	안양평교로 254	031-421-8886
<b>이천</b>				
72	이천술밭시골반상	한식	호법면 이십대리로96번길 66	-
<b>평택</b>				
73	근계메계탕	한식	자유로 22	031-652-7430
74	더리바이트	양식	평성읍 안정순화로 187	031-656-3083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75	미담축산	육류	경기평택시 원평로 37	010-8600-7091
76	미담	육류	삼남로 535	031-663-3959
77	석실식당	해산물	중앙로 209-1	031-652-9101
78	선희네집	육류	특구로23번길 12	-
79	스모크타운	양식	평성읍 신흥북로49번길 28-3	031-618-9294
80	우기마	육류	비전5로 20-36	-
81	우리한양식당	한식	평택로20번길 38	031-652-4907
82	제주복어	해산물	진위면 영저로 73	031-373-2500
<b>하남</b>				
83	갈비도락	육류	미사대로 584	-
84	꽃누리들밥	한식	검단로 7	031-795-3999
85	민두집 온고개점	한식	하남대로 5	-
86	산곡민물매운탕 어탕칼국수	해산물	하남대로 183	031-793-9292
<b>화성</b>				
87	구들평향소곱창 화성점	육류	화남읍 화남로 430-16	031-8059-6939
88	김진순숯불갈비	한식	남양읍 역골동로 5-2	0507-1324-2350
89	대부도산꽃게낙지매운탕	해산물	팔탄면 31만세로 776	031-354-7478
90	두오츠	육류	장안면 한천길 32-7	031-358-3670
91	루디식당	양식	동탄대로 469-12	031-377-3048
92	로이트	양식	동탄소환대로5길 5-8	031-8058-8989
93	명품생태찌개	해산물	영통로 73-3	031-203-5001
94	백소정 동탄남광장점	일식	동탄중심상가1길 8	031-613-2287
95	랜딩이천국연한구이	육류	화남읍 배터길 4-2	031-363-0115
96	산골주어탕	해산물	봉담읍 가늘골2길 39	031-222-9695
97	초가지집	해산물	남양읍 남양로 610	031-356-7525
98	칠보토종닭	육류	매송면 매송고색로395번길 104	031-292-3236
99	카페반월	카페	효행로1265번길 76	031-898-9822
100	해주초계탕	한식	팔탄면 버들로 1455	031-353-2252

## 기와집몰랑에 찾아온 말랑말랑한 봄

### 여수 거문도

육지에서 먼 섬이 있다는 건, 여행자에게 축복이다. 여수와 제주의 중간쯤에 자리한 거문도는 다도해의 최남단이다. 학꽂치는 몸이 간지러운 듯 유명하고, 승어는 높이뛰기 선수처럼 튀어 오른다. 산에서는 특~동백꽃이 지고, 수선화가 환하게 핀다. 거문도의 절경인 기와집몰랑, 거문도등대와 녹산등대를 걸으며 섬의 화려한 봄을 만끽해보자.

글 사진 진우석

巨文島



01

**기와집몰랑, ‘아 몰라 너무 좋아’**

거문도의 최고 명소는 기와집몰랑과 거문도등대를 꼽는다. ‘몰랑’은 전라도 사투리로 산마루라는 뜻이다. 바다에서 보면 이 능선이 기와집 영마루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침 일찍 덕촌마을에서 출발했다. 불탄봉과 기와집몰랑을 거쳐 거문도등대까지 걸기로 했다.

불탄봉은 거문도 최고봉이지만, 높이가 불과 195m로 만만하다. 덕촌마을에 불탄봉까지는 완만한 오르막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나른한 봄기운 받으며 싸목싸목 40분쯤 가면 꼭대기에 올라붙는다. 정상에 널찍한 데크가 있어 조망이 시원하게 열린다. 주변은 온통 동백나무로 덮였다. 붉은 동백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절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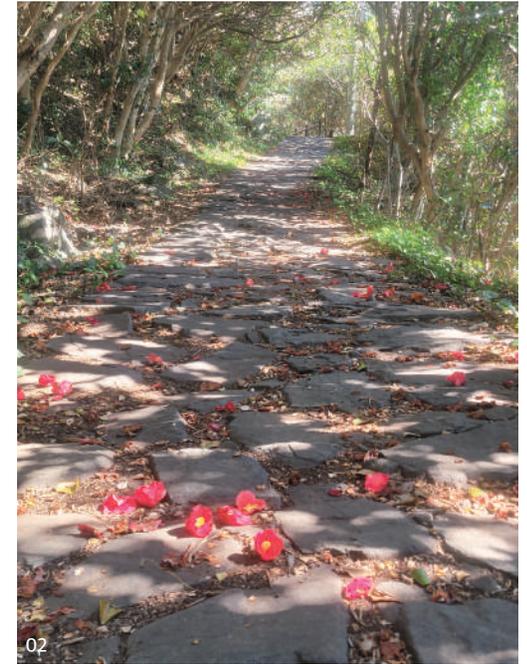
능선은 부드럽다. 군데군데 나타나는 동백숲 터널에서 붉은 꽃과 눈 맞추고, 조망이 열린 곳에서는 멈춰서 ‘바다멍’ 하는 맛이 삼삼하다. 세 개의 돌탑을 지나면 기와집몰랑으로 들어선다. 거친 암릉과 그 사이에 빼곡하게 들어찬 동백나무가 어우러진다. 보로봉 직전에서 오른쪽을 보면 바다 쪽에서 불끈 튀어나온 기암이 보인다. 이곳이 유명한 신선대다. 동백숲을 헤치고 신선대 꼭대기에 오르자 시야가 거침없다. 멀리 거문도등대까지 서도의 서쪽 해안이 한눈에 펼쳐지고, 반대쪽은 천 길 벼랑이라 오금이 저린다. 다시 능선으로 돌아와 보로봉에 오르자 이번에는 북쪽으로 거문도 전경이 눈에 들어온다. 동도, 서도, 고도가 웅기종기 모여 삼호를 부드럽게 감싼다.

기와집몰랑이 끝나면 점점 등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다. ‘365계단’을 내려서 ‘목넘어’를 만난다. 거문도등대가 선 수월봉과 서도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바람이 센 날은 파도가 길을 후려친다. 거센 바람 탓으며 목넘어를 건너면 호젓한 동백 숲길이 이어진다.

**거문도등대 가는 길, 동백꽃과 수선화**

동백꽃은 ‘나무 위에서 100일, 땅 위에서 100일 핀다’라는 말이 있다. 매달린 꽃보다 길에 떨어진 동백이 자꾸 발길을 붙잡는다. 툭~ 소리와 함께 동백이 떨어진다. “가장 눈부신 순간에 스스로 목을 꺾는”(문정희, 동백꽃)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처연하다.

거문도등대는 1905년 남해안 최초로 세워졌다. 100년이 훌쩍 넘었다. 옛 등대는 왼쪽 절벽 위에 자리하고, 지금은 높은 새 등대가 불을 밝힌다. 등대 뒤편의 관백정 정자는 백도가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관백정에서 서니 수평선에서 눈부신 백도가 아스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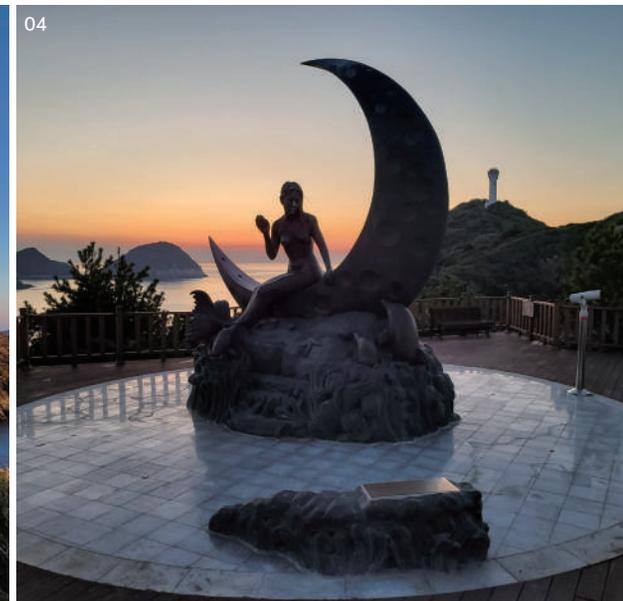


02

- 01 거문도 최고 절경으로 꼽히는 기와집몰랑. 수려한 바위 능선에서 바라보는 거문도의 다양한 풍경이 일품이다.
- 02 거문도등대 가는 길에 떨어진 동백꽃은 붉은 등을 켜 것 같다.
- 03 거문도 가장 북쪽에 자리한 녹산등대
- 04 녹산등대 가는 길의 신지끼 인어상



03



04

거문도등대에서 꼭 봐야 할 게 수선화다. 등대 아래의 험준한 벼랑에서 피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하지만 찾기 어렵고 험준한 벼랑이라 위험하기도 하다. 등대 관리소에서 잔디밭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를 찾아보면 된다. 무릎을 굽히고 수선화와 눈을 맞추고 쿵~ 향기를 맡아본다. 진하고 깊은 향이 밀려온다. 여섯 개의 하얀 꽃잎 가운데 금색 꽃은 봉긋 솟았는데, 이 모습 때문에 금잔옥대(金盞玉臺)라고 불린다. 동백을 원 없이 보고, 수선화까지 만나니 봄이 내 안에 가득 찬 느낌이다. 등대로 되돌아가는 길, 어둡한 숲길에서 떨어진 동백꽃들이 붉은 등을 밝힌다. 저 등이 꺼지면 봄도 떠나리라.

견기의 종착점인 삼호교는 고도와 서도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다. 거문도는 서도, 동도, 고도 세 섬이 절묘하게 모여 있어 '삼도'라고 불렀다. 생김새는 서도와 동도가 마치 두 손이 가운데를 감싸듯 마주 본다. 북쪽 바다와 만나는 지점은 병목처럼 좁고, 남쪽 바다



05 불탄봉 정상의 동백 군락지. 붉은 동백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다.  
06 거문도등대 잔디밭에서 만날 수 있는 수선화

는 자그마한 고도가 딱하니 버티고 있다. 세 섬이 둘러싼 바다는 그야말로 호수다. 이곳을 '삼호', '도내해(島內海)'라고 부른다. 삼호는 전체의 항구 역할을 한다. 삼호교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물고기 떼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학꽂치다. 바닷속은 이미 봄이 왔고, 학꽂치는 몸이 간지러운 듯 봄바다를 유영한다.



07 녹산등대에서 바라본 노을. 서정적인 일몰 풍경 속의 두 척의 낚싯배가 다정하게 느껴진다.

### 녹산등대의 다정한 노을

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한 녹산등대는 일몰 명소다. 거리가 멀기에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다. 등대 가는 길은 널찍한 초원이 펼쳐져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이 시원하다. 작은 언덕에는 돌을 들고 있는 '신지끼' 인어상이 있다. 신지끼는 상체는 여인, 하체는 물고기인 인어다. 섬사람들은 신지끼를 섬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큰 풍량이 일어나기 전날 어김없이 나타나 절벽에 돌을 던져 이를 알렸다고 한다. 인어상에서 조금 더 오르면 녹산등대가 나온다. 등대에서 서면 걸어온 길과 서도와 동도를 이어주는 거문대교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시나브로 서도의 무구나무섬으로 해가 진다. 저무는 해를 받은 바다는 오묘한 빛을 내뿜는다. 노을 속에서 낚싯배 한 척이 기름 떨어진 배를 유유히 끌고 가는 모습이 다정해 보인다.

### 거문도 가이드

거문도 최고 절경인 기와집물랑과 거문도등대를 묶어 걷는 게 좋다. 덕촌마을~불탄봉~기와집물랑~거문도등대~삼호교 코스는 약 10km 넉넉하게 4시간쯤 걸린다. 거리가 부담스럽다면 유림해변~기와집물랑~거문도등대~삼호교 코스가 좋다. 총 6km, 2시간 30분쯤 걸린다.



## 알프스 하이킹의 '숨은 메카'

## 스위스 융프라우

스위스 알프스 중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베르너 오버란트 알프스다. 융프라우, 아이거, 뮌히 등 4,000m 이상 고봉이 30여 개가 모여 있다. 융프라우 일대는 알프스 트레킹의 숨은 명소로 사랑받는다. 능선과 산악마을을 잇는 총 70여 개, 200km의 코스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표.사진 서영진

# Jungfrau

# Switzerland

### 유럽 최정상역의 빙하 트레킹

융프라우 트레킹 루트는 대부분 산악열차, 곤돌라와 연결된다. 거친 숨으로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높은 곳에서 시작해 산악풍광을 감상하며 내려설 수 있다. 알프스의 ‘휴’를 밟고 ‘향기’를 맡는 꿈같은 일들이 이곳에서는 수월하게 전개된다. 길을 걷다 산악열차 차장과 눈인사를 나누고, 젓소와 마주치는 일이 일상처럼 다가선다.

융프라우요흐는 유럽 최정상의 역이다. 톱니바퀴 산악열차의 종착점이자 만년설 전망대, 얼음공전, 정상에서의 ‘컵라면’ 이벤트로 소문난 곳이다. 하이킹 애호가들은 빙하 트레킹을 위해 융프라우요흐를 다시 찾는다.

융프라우요흐까지 오르는 이유에는 알프스 정상에 펼쳐진 빙하를 만나는 게 큰 몫을 차지한다. 알레치 빙하의 길이는 22km로 독일 흑림지대까지 아득하게 뻗어 있다. 이곳 빙하는 융프라우 봉우리와 함께 알프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이런 빙하를 눈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아쉽다. 융프라우요흐의 문밖으로 나서면 광활한 빙하지대와 트레킹 코스가 연결된다. 해발 3,000m 이상 고지에서 빙하를 감상하며 뮌히요흐 산장까지 걷는 하이킹은 가슴 뛰는 독특한 체험이다. 빙하를 밟으면 ‘사각 사각’ 빙수 소리가 난다.

빙하 하이킹은 뮌히요흐산장까지 왕복 3.4km 이어지며 3월 중순~10월 중순 진행된다. 산장까지는 왕

복 2시간이 소요되며 해발 3,400m대의 고도를 걷는 체험이라 약간의 고소증을 느낄 수 있다. 하이킹의 표고차는 200m로 완만한 편이며 산장에 도착하면 대형 사발에 담긴 ‘마운틴 커피’ 한잔을 마시는 오붓한 시간이 마련된다. 뮌히요흐 산장은 융프라우 3대 봉우리인 뮌히를 오르는 등반가들의 베이스 캠프로, 알프스 현지 산악인들의 분위기가 실감나게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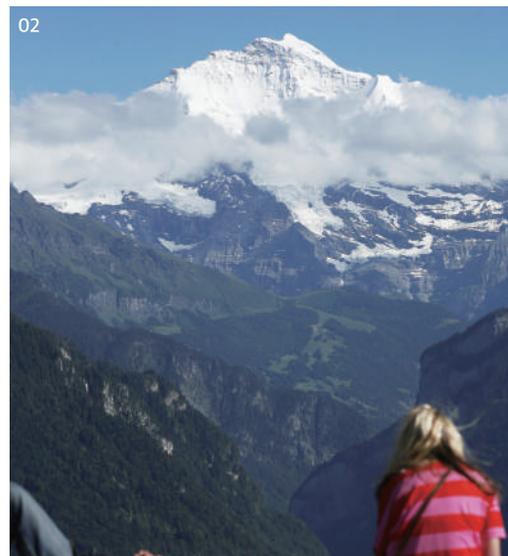
### 아이거와 산악마을을 잇는 길

간이역들은 그 자체로 트레킹의 출도착 포인트다. 해발고도 2,061m의 클라이데사이텍은 융프라우요



04

- 01 해마다 많은 이들이 찾는 융프라우
- 02 관광객이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 03 이국적인 산악열차가 만들어내는 풍경
- 04 산과 마을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경



052



05

호로 향하는 관문이자 걷기여행자들의 집결지다. 정면으로는 아이거의 거친 절벽과 마주하고, 발아래는 살레지봉의 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알프스의 3대 북벽인 아이거 북벽은 한때 등반금지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험난한 코스였다. 70여 년 전 초등 등정을 위해 사투를 벌였던 청년 등반가들의 도전과 떠남의 이야기는 빛바랜 철로 위에 스며 있다. 클라이네사이텍에서는 아이거 북벽 아래를 생생하게 걷는 아이거트레일 코스, 산악마을 그린델발트와 라우터브룬넨을 조망하며 멘리헨까지 걷는 파노라마 코스, 소나무숲과 야생화 사이를 가로지르는 클라이네사이텍-알피글렌 코스 등이 인기 높다. 파노라마 코스의 역방향은 트레킹 내내 융프라우, 아이거, 뮌히를 마주할 수 있으며, 아이거글레처역에서 클라이네사이텍까지 걷는 아이거워크 루트는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4월에는 클라이네사이텍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스노우펜 에어 콘서트'가 열린다. 융프라우 3대 봉우리를 배경으로 록 뮤지션들의 산중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융프라우요흐행 마지막 간이역인 아이거글레처는 최근 아이거 익스프레스 곤돌라의 개통으로 분주해졌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초콜릿 작업장에서 수제 초콜릿을 맛볼 수 있으며, 레스토랑 야외 테라스에서는 눈 덮힌 산악경관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주어진다.

### 휘르스트, 바흐알프 호수 하이킹

'아이거 아래 마을' 그린델발트와 연결되는 휘르스트는 산정호수까지 걷는 트레킹이 인기 높다. 휘르스트역에서 시작되는 산행길은 낮고 가지런하며, 낮은 평균 기온 탓에 나무가 자라지 못해 키 작은 풀들이 동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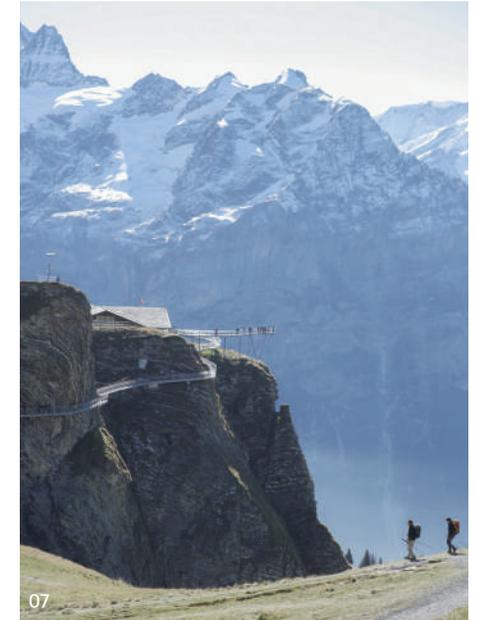
2시간 남짓 계속된 트레킹은 바흐알프 호수에서 침표를 찍는다. 스위스 엽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호수인 바흐알프는 쉬렉호른 봉우리가 데칼코마니로 찍어낸 듯 대칭을 이루며 그림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산행객들은 갈 길을 멈추고 호수의 정경에 한동안 넋을 잃어 자리를 뜨지 못한다. 빙하가 녹아 형성된 이곳 호수는 푸르고 맑으며 물은 시리도록 차갑다.

휘르스트역 산장은 하루 목거나 등산화를 빌리고 이곳 맥주인 루겐브로이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쉼터다. 역 앞에는 이 일대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출발 포인트가 위치했다. 2,000m 넘는 곳에서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를 바라보며 하늘을 나는 체험은 또 다른 묘미다. 휘르스트 일대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패러글라이딩 장면을 촬영했다. 휘르스트에서 간이역들을 지나며 휘르스트 플라이어, 마운틴카드 등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그린델발트까지 전원마을과 젯소를 구경하며 내려설 수 있다.

- 05 자연이 함께하는 융프라우 여행
- 06 휘르스트 일대는 패러글라이딩 명소
- 07 걷고 또 걸으면 언젠가 목적지에 닿겠지.



06



07

### 융프라우 하이킹



융프라우 일대에는 70여 개 트레일 코스가 있으며 출도착 역의 막차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3~4일 머물며 다양한 코스를 걸으려면 열차, 곤돌라를 제한 없이 탑승 가능한 융프라우철도 VIP 패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고지대에서는 방한복이 필요하며, 빙하 하이킹 때는 선글라스가 필수다. 산악열차역은 대부분 산장을 겸하고 있으며, 마을에는 캠핑장 등 숙소가 마련돼 있다.



# 실수 있는 산, 유명산

“어? 이거  
쉬는 게 아닌데?”

휴양림으로 더 잘 알려진 유명산, IBK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절친들이 모였다. 바빠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산은 몇 곱절 오랜만이다. 쉬는 날 맑은 공기 쐬자고 모였는데 제대로 운동을 했다. 다시 산에 오게 될까? 그건 모르겠지만, 반가운 얼굴들은 더 자주 보고 싶다!

글 서승범 사진 영상 이대원 영상편집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1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비결**

3월 초, 봄이라기엔 아직은 이르지만 3월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다. 쉬는 날이지만 유명산자연휴양림 입구에 아침부터 까르르 웃음소리가 높다. 오랜 인연들도 만나고, 산에 올라 맑은 바람도 쓸 마음으로 젊은 IBK인 여섯 명이 모였다. 모두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인연이다.

“모두 학교에서 만났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선후배 혹은 동기 사이로 알고 지냈죠. 먼저 입학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기도 했고요.”

퇴직연금부 박성목 대리와 프로젝트금융부 임준성 대리, 서소문지점 박성온 대리와 가산패션타운의 이건희 대리는 같은 학과 동기여서 신입생 때부터 친했다. 그러다 박성온 대리가 복수전공 수업에서 김혜영 대리를 만났고, 과 동아리에 박지은 대리가 가입하면서 지금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02

- 01 “봄을 찾아 유명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파이팅!”
- 02 주차장에서 몸을 풀고서 이제 출발
- 03 유명산 계곡에는 아직 얼음 조각이 있지만 바람에서는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 04 “파이팅” 신나게 산을 오르는 IBK인들

졸업 후 입행을 준비할 때도 서로 의지했고, 박성목·임준성·박성온·김혜영 대리가 먼저 입학한 후 이들의 조언과 노하우에 힘입어 박지은 대리에 이어 지난해 이건희 대리가 합류하면서 IBK인으로 ‘시즌2’가 시작되었다. 요컨대, 오랜 인연의 ‘찐친’이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 서울 곳곳의 맛집을 탐방하는데, 구성원들이 밝고 에너지가 넘쳐 자전거나 스포츠클라이밍도 때때로 함께 즐기는 편. ‘IBK산’ 모집 안내를 보고 ‘춘삼월에 모처럼 등산이나 한 번?’ 아이디어를 박성목 대리가 냈다. 한산한 주차장에서 몸을 풀었다. 영상의 기온이지만 아직은 쌀쌀해 몸을 데워야 부상을 막을 수 있다. 등산로 입구의 지도 앞에 잠시 모였다. 박성목 대리가 코스를 소개한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능선길과 계곡길이 있는데, 우리는 힘든 능선길로 올라 편안한 계곡길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04

“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디인들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뎨 몰랐다. ‘힘든 능선길’이 생각보다 더 힘들단 것과 ‘편안한 계곡길’이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03

**산을 오르는 맛 1: 예상은 어긋나기 마련이지만**

유명산은 자연휴양림으로 잘 알려졌다. 휴식을 취하면서 산책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지만, 유명산 자체가 그리 만만한 ‘휴양림 뒷산’은 아니다. 정상 부분이 완만하고 인근에 너른 역새밭이 있어 그리 가파르다는 인상은 없지만, 해발 862m로 기본적으로 고도가 좀 있는 편이다. 북한산(835m)보다 높다. 이웃한 용문산(1,157m)에 비해 낮아 ‘순한 맛’ 이미지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등산 코스로 손색이 없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장비 갖추고 몸 풀면 가족 산행지로도 좋은 산이니까.

능선으로 오르는 길은 간혹 가파른 경사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암괴석의 ‘악산’이 아니라 흙을 밟으며 오르게 되는 ‘육산’에 속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만나지 못한 사이에 있었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야기들, 오래전에 함께 나누었던 추억을



06

07

이야기하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일 리가. 오르막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모처럼만의 산행이라 숨은 턱에 차오르고 허벅지 근육은 비명을 지른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유머다.  
 “아! 힘들어. 누가 산에 가자 그랬어!”  
 “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왔으니 좀더 기운을 내서 정상을 봐야죠!”  
 “이건 우리의 첫 등산이자 마지막 등산이야!”  
 내내 치고 오르는 오르막이라 그렇지 코스가 그리 길진 않다. 산행에만 집중한다면 1시간 남짓이면 오를 거리, 사진도 찍고 고프로도 찍어보고 하다 보면 두 시간 가까이 걸린다. 그렇게 오른 정상.



05



05 능선 따라 정상 가는 길. ‘우리 유명산에 쉬러 온 거 맞~쪄?’  
 06 잠시 숨 돌리는 시간, 박성온 대리와 김혜영 대리가 함께 찰칵  
 07 고프로 타임. “오늘 산행 어떠세요?”, “힘들지만 좋습니다.”  
 08 힘들지만 정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동료들  
 09 산 정상에서 즐기는 생일 축하. 다시 한번 김혜영 대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산불 조심! 아쉽지만 촛불은 패스~).

**산을 오르는 맛 2: 산꼭대기에서 생일상 받아봤어?**

정상의 맛은 인증샷이지.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 줄을 설 필요 없이 거의 기다리지 않고 정상 기념사진을 찍었다. 준비해온 간식도 먹고 인터뷰도 진행하면서 휴식을 취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컵라면에 김밥이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더구나 두어 시간의 산행 후 정상에서 먹는 거라면 거부할 도리가 없다. 준비한 라면과 김밥을 거의 먹어갈 즈음.

“잠깐! 하산하기 전에 잠시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어딴지?”

초코파이를 싣고 나무젓가락을 꽂아 케이크를 만들었다. 김혜영 대리의 생일은 2월 29일.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년에만 생일이 있기 때문에 오랜 ‘찐찐’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 깜짝 생일 파티를 마련했다. 산 정상에서 생일 축하 노래와 축하가 이어졌다. 윤년인 내년 생일 파티에도 이들은 아마도 함께 있지 않을까.



09



10 정상 언저리 역새발을 내려오다가 "여기 좋다. 한 장 찍고 가자!"  
 11 유명산 정상에서 바라본 조망. 시야가 탁 트이진 않았지만 올라온 수고를 달래기엔 충분했다.  
 12 물 많고 시원하기로 유명한 유명산 계곡

하산길을 계곡길로 잡은 건 힘든 산행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상상하며 편안하게 내려오기 위함이었는 데, 아불싸, 아니다. 계곡이 제법 길고 가파르다. 정상에서 능선 따라 계곡까지가 1.6km,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 2.7km다. 그러고 보니 유명계곡은 무더운 시절에 물놀이 명소로 알려졌다. 계곡이 좋다는 건 길고도 깊다는 뜻, 해가 잘 들지 않는 곳곳에 아직 눈이 남아 있어선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아직 얼음이 남은 소는 짙푸른 색으로 그 깊이를 짐작케 한다. 유명계곡에는 세 개의 유명한 소가 있다. 널찍한 마당바위가 있는 마당소,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용소, 소 옆 바위 밑에 박쥐가 살았다는 박쥐소. 한여름이었다면 이 시원한 계곡을 놓칠세라 첨벙거렸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박쥐소를 지나 철계단을 건너면 사방댐이 나오고 이내 산행이 마무리된다.

**북한산에 진달래 가득할 때**

'아, 힘들어' 탄식이 절로 나왔지만 즐거움은 그 이상이었던 건 '이짚부스터'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어머님이 싸주신 과일로 에너지와 함께 따스함까지 전해주었던 이견희 대리의 공이 크다. '이짚부스터'는 이견희 대리가 신고 온 운동화 '이지부스터'가 짚신을 닮아 동료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산행의 마침표는 역시 맛있는 점심일 수밖에. 맛난 닭볶음탕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는 산행 주최자 박성목 대리에 대한 성토와 그래도 내려오니 즐거웠다는 웃음이 반반이었다. 우리 알고 있었다. 우리 다시 함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며칠 지나지 않아 모임 채팅방에서 북한산에 진달래가 언제 어느 코스에 피는지, 일정은 되는지 이야기가 오갔다. 진분홍으로 물든 진달래능선을 다녀와 날이 좀 더워지면 유명계곡의 물줄기가 다시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13 유명산 무사히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명산 INFO**



- 주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 코스** 유명산자연휴양림 ~ 정상 (6.3km)
- 입산 시간** 오전 9시부터 15시(일몰 전)
- 문의** 유명산휴양림 사무소 031-589-5487



## 나무 도마에 새겨 넣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나무를 깎아 도구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다.  
하지만 나무가 가진 성질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무늬가  
가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글 엄세권 사진 김세명

*Wooden Cutting Board*



### 직접 나무를 깎는 이유

교과서에 실려 잘 알려진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의 이야기다. 필자는 동대문 길가에서 노인에게 방망이 한 벌을 주문했다. 필자가 보기엔 이미 완성되어 보이는 방망이를 노인은 깎고 또 깎았고, 필자는 차 시간 때문에 노인을 재촉했다. 하지만 노인은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방망이를 깎았고, 결국 필자는 차를 놓치고 말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로봇이 제품을 순식간에 찍어내는 지금 시대에 나무를 직접 깎고 모양을 만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천안의 한 공방. 건물의 문을 열자 진한 나무 냄새가 풍겨온다. 나무를 다루는 곳이라 그런지 탁자도 의자도, 선반과 작은 소품들도 모두 목재로 만들어져 어쩐지 고풍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벽난로에서

는 나무장작이 타닥타닥 타고 있고, 공방 주인의 아들이 나무 책상에 앉아 학교 숙제를 풀고 있다. 해가 누엣누엣해질 즈음, 이 조용한 공방에 6명의 IBK인이 방문했다.

“오늘은 나무 도마를 만들어볼 거예요. 나무를 도마 모양으로 자르고, 사포질을 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각인을 하고 오일로 마무리 작업까지 할 거예요. 각자 미리 선택한 나무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IBK인들은 편백, 캄포, 월넛 등 자신이 선택한 나무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이 모양을 미리 만들어놓은 학생들은 사포질부터 시작했다. 보다 입자가 굵고 거친 사포로 시작해 거친 절단면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다시 입자가 얇은 사포로 작업을 이어갔다.

“부지점장님! 사포질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나무가 작아진 것 같아요!”

김예진 대리의 재치에 모두가 웃음이 터진다. 꽤 긴 시간 사포질이 이어지면서 팔이 아플만도 한데, 직접 쓸 도마라는 생각에 IBK인들은 힘든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오히려 향긋한 나무 냄새를 맡으며 사포질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IBK인들. 모든 것이 빠른 시대에 직접 나무를 깎는 이유를 찾는다면 지금 이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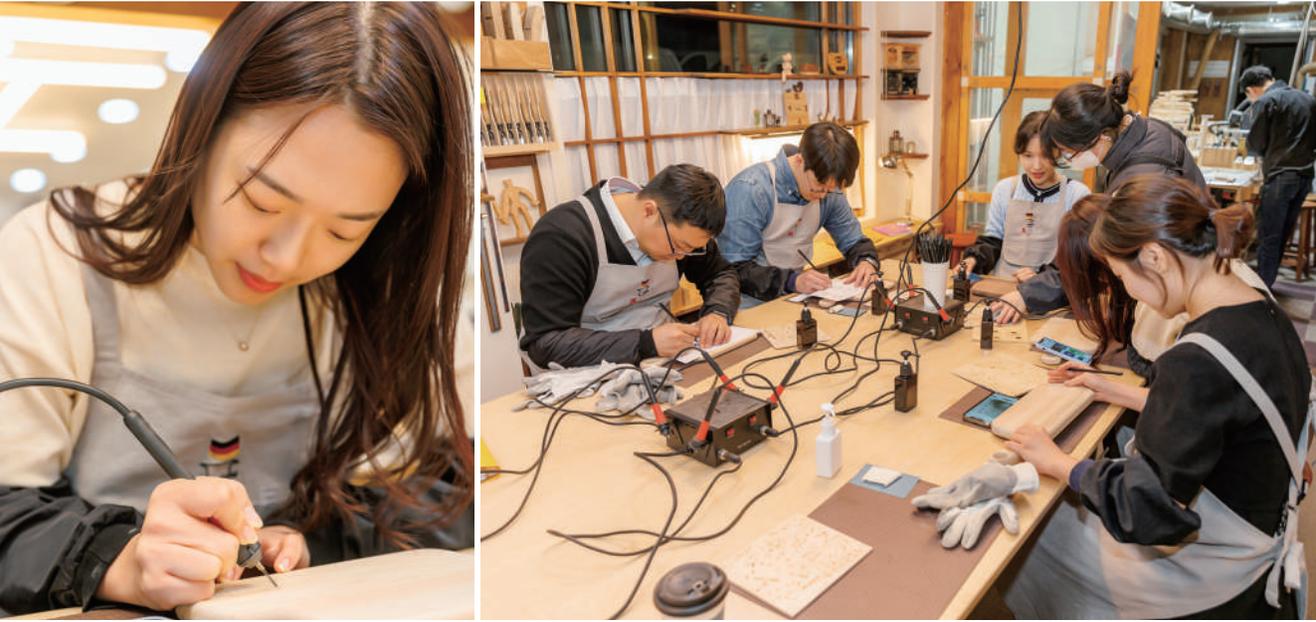
### 도마에 그린 소중한 행복한 순간들

사포질과 샌딩 작업이 모두 끝나자 어느새 도마 모양이 갖춰졌다. 편백은 정사각에 가까운 모양이었고, 캄포와 월넛은 가로가 조금 더 길었다. 이제는 준비된 나무 도마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우드버닝’ 시간이다. IBK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본 나무 도마에 어떤 모양을 새겨 넣을지 고민했다.



모든 것이 빠른 시대에 직접 나무를 깎는 이유를 찾는다면 지금 이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제 아이가 그린 우리 가족을 그려 넣으려고 해요. 아직 어려서 저와 남편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놓았지만 제가 처음 만드는 도마에 저희 가족이 들어간다면 무척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권미지 대리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아이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왜 이렇게 가족이 많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저를 3명, 남편을 2명 그렸어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최근 캠핑에 빠졌다는 김예진 대리는 도마를 캠핑할 때 꼭 챙겨갈 거라며 도마에 캠핑용 텐트를 그렸고, 유일하게 월넛을 선택한 김혜민 대리는 꽃을 그렸다. 오늘 참여 신청한 황재용 과장은 아이의 뒷모습을 그렸다.

“우리 아이가 이제 1살이 되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도마에 새기고 있어요. 물론 아이가 그린 그림은 낙서에 가까운 그림이지만 이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아이의 뒷모습까지 넣어서 도마에 그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림을 모두 완성하고 난 뒤 오일을 도마에 바르고 수업이 끝났다. 나무는 자른 단면을 보고

몇 해를 살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독특한 생명체다.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계절에 따라 죽음과 탄생을 반복한다. 그래서 나무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나무가 나이를 통해 세월의 흔적을 남기듯, 오늘 IBK인들은 나무 도마에 서로의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그려 넣었다. 그렇게 도마에 그려 넣은 소중한 순간들은 긴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을 것 같다.



##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팀원들과 소통도 하며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중앙지점 박진욱 부지점장

처음에 자리에 앉았을 땐 그저 나무도막이었는데 점차 도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도마를 보고 기뻐할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니 행복하네요.



천안중앙지점 황재용 과장

6살 된 우리 아이가 그린 가족을 도마에 그렸어요, 아이를 보여주면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도마를 들고 다닐까봐 걱정돼요.



천안중앙지점 권미지 대리

화사가 아닌 공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캠핑에 관심이 생겼는데, 캠핑 갈 때 꼭 챙겨갈 거예요.



천안중앙지점 김예진 대리

원래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팀원들과 함께하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집중해서 도마를 만들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렸어요.



천안중앙지점 김혜민 대리

색다른 경험을 하며 동료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중앙지점 정두원 대리

# 식물을 예쁘게 담아 만든

# 나만의 화원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의  
테라리움 만들기

유리 용기나 수반에 다육식물을 심고 앙증맞은 피규어 등을 활용해 꾸미면  
멋진 화원이 탄생한다. 작고 아기자기한 공간에 나만의 소우주가 생기는 기분!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직원들이 테라리움의 매력에 푹 빠졌다.

글 한울 사진 김경수 열살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과 정성을 담다**

테이블 위에 초록 식물이 놓이자 회의실 분위기가 금세 싱그러워졌다. 이를 본 직원들의 얼굴이 봄꽃 처럼 화사해졌다. 박숙자 대리가 “팀장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어요!”라며 고마움을 전하자 이진선 팀장은 부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 모두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심사부의 업무 특성상 4월부터는 일이 무척 바빠지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을 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센터장님을 포함해 직원들에게 기억이 남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오늘의 수업은 테라리움 만들기. 테라리움(Terrarium)이란 라틴어의 ‘Terra(땅)’와 ‘Arium(용기)’의 합성어로, 유리병이나 수반에 가공한 흙과 구슬 등의 장식 소품을 넣고 식물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다육식물을 활용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는 게 장점이다. “테라리움은 용기 안에 작은 식물을 심어 키우는 실내 가드닝으로 마치 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만들 테라리움의 콘셉트는 해변과

진짜 정원처럼 만들어야지~



바다입니다. 완성된 작품은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예쁘고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재료는 같지만, 완성 후에는 여섯 개의 다른 작품이 탄생할 거예요. 자, 그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까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너른 수반과 와인 잔 모양의 유리 용기가 테이블에 준비되었다. 최수경 팀장과 백승규 과장이 유리 용기를 택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수반을 택했다. 자갈, 흙, 모래, 피규어 등 테라리움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주어졌다.

**떠나요~ 하얀 백사장이 있는 푸른 바다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차례! 테라리움은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따로 없어서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입자가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다육아 잘 자라라~!

굵은 자갈을 용기 맨 아래에 깔아주고 그 위에 흙을 덮는다. 그다음 다육식물 심어 개를 마치 꽃꽂이하듯이 용기 한쪽에 심어준다. 예쁜 모양으로 만들려면 식물들의 간격을 좁혀 심고 작은 식물은 앞에, 큰 식물은 뒤에 배치해 안정감과 공간감을 줘야 한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직원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화분에서 다육식물을 빼내 핀셋을 이용하여 흙에 옮겨 심을 때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이 필요했다. 시작 전 들었던 분위기는 어느새 집중 모드로 전환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빈 용기에 식물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숙자 대리가 “센터장님! 재능이 보이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작업하던 손을 멈춘 직원들이 이상헌 센터장의 수반으로 눈길을 돌렸다. “속도도 엄청 빠르시네요.” 이번에는 최수경 팀장이 말을 덧붙였다. 직원들의 반응에 이상헌 센터장이 수줍게 웃었다.

“이렇게 모여 앉아 손으로 작업을 하니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마치 미술 시간 같아요!” 이상헌 센터장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에 식물을 다 옮겨심으면 테라리움 만들기의 90%가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공간을 꾸밀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직원들이 다시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강사의 설명에 따라 하얀색, 파란색 모래로 백사장과 바다를 표현했고 아자수와 화산석을 배치해 해변 분위

기를 자아냈다. 누군가는 해변에 안락의자를 두었고 누군가는 언덕 위에 별장을 지었다. 별장 앞에는 멋진 자동차가 서 있었다. 바다 위 요트는 양증맞았다. “해변과 바다를 만들고 있으니 어디론가 정말 떠나고 싶어지네요!” 나홍환 부장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식물과 함께 봄을 마중한 시간**

두 시간여의 작업 끝에 드디어 여섯 개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네 개의 수반은 너른 백사장과 바다가 잘 표현돼 멋스러웠고, 와인잔 모양의 유리 용기는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직원들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렸다.

강사의 제안에 따라 투표를 통해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기로 했다. 작품을 책상에 나열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하나씩 골랐다. 그 결과 이상헌 센터장의 수반이 최고의 작품으로 뽑혔다.

“센터장님의 별명이 어린왕자예요. 감성이 아주 풍부하시거든요. 그 감성이 작품에도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박숙자 대리의 말에 이상헌 센터장이 “정말 영광입니다”라며 화답했다. 강사는 “모든 분들이 손재주가 뛰어나다”며 엄지를 세웠다. 화기에애한 시간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작품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로 했다. 테라리움 덕분에 초록 기운이 감돌았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초록을 닮은 생기가 가득했다.



**IBK핸드메이드 참여 후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지 오래전이라 만드는 내내 동심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이라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진선 팀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다, 해변, 별장이라는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게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퇴 후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을 보니 뿌듯합니다.

테라리움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여섯 명 모두 다른 느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내내 시원하고 푸른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헌 센터장

나홍환 수석심사역(부장)

최수경 선임심사역(팀장)

내 손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든 듯한 느낌입니다.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선물할 생각입니다.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감상하면서 오늘의 추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이라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가 오가고 유쾌한 웃음이 있어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테라리움 보면서 힐링하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집중해서 만드는 동안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법 잘 만든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집에 두고 가족과 함께 감상하고 싶습니다. 집안에 초록초록한 싱그러움이 가득해질 것 같습니다.



백승규 심사역

박숙자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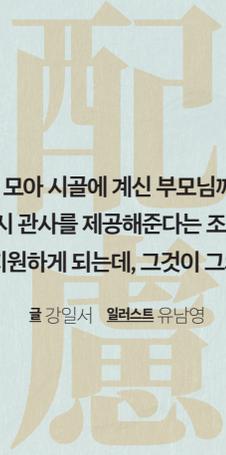
김수연 계장

#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박두성의 '훈맹정음'



일제강점기인 1913년 그는 돈을 모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땅을 사드려야겠다는 꿈을 가진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당시 관사를 제공해준다는 조건의 공고에 끌려 제생원이라는 맹아(시각장애인)학교에 교사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다.

글 강일서 일러스트 유남영



송암 박두성 선생은 교육자로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한글 점자를 만들어 보급한 인물이다. 제생원에 처음 부임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시각장애 아동들이 아직 우리 말도 한국어로 잘하지 못하는데, 점자를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자는 아예 한글로 된 것이 없었기에 그는 시각장애 아동들이 앞으로 겪을 아픔에 대해 고민하며 홀로 점자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더군다나 1919년에는 3.1운동의 여파로 일본이 맹아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못 하게 하자, 일본인 관리에게 “실명한 이들에게서까지 조선 말을 빼앗아 병어리로 만들려는 것이오?”라고 편지를 보내어 일본인에게 저항하며 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어 1920년 그는 제자 8명과 함께 '조선어 점자 연구회'를 비밀리에 결성한다. 그리고 한글과 같이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쉬워야 하고 한글과 같이 점의 수가 적어야 하며, 헛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한글 점자의 원칙을 세우게 된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눈이 멀었다 하여 우울하여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며 그들을 위로한다. 또 소외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제의 눈을 피해 훈민정음을 구해 한글 창제 원리를 공부하며, 각막염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1926년 당시 훈민정음 반포일로 추정되는 11월 4일, 전국 맹인학교를 통해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취지문을 발송하며, 드디어 7년 만에 훈맹정음을 세상에 반포한다. 그는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 시각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에도 힘썼다. 그렇게 63개의 점자 '훈맹정음'은 남북한 모두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으며,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 대왕으로 불리고 있다.



# 인공지능(AI)의 현주소



초거대 AI(Supe-Giant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공지능의 대표 격인 OpenAI의 Chat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간과 같은 문장작성이 가능하며 번역과 요약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화를 기억하고 맥락을 이어가기도 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는 변화, 향후 진화 방향 그리고 우리의 대비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글 김계수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디지털 혁명

대한민국의 5세대(5G) 통신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고 글로벌 선례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다. 인공지능(AI), 오픈랜(개방형 무선통신망), 6G 정보통신 등 차세대 기술 대부분에서 더 이상 한국 기업이 기술 우위 국가가 아닌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며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2022년 11월에 출시된 생성 인공지능인 챗GPT는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챗GPT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가적인 수단 없이 대화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동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던 대화형 AI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에서도 오픈 AI의 챗GPT를 서비스에 도입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여행 스타트업 ‘마이리얼트립’은 최근 챗GPT를 활용한 ‘AI 여행플래너’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행을 계획하고, 맛집, 명소, 날씨 등 여행 관련 세부 주제에 대한 실시간 대화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작년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화화공모전에서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그림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우승을 차지했다. 해당 사건은 시가 단순한 흥미 요소에서 벗어나 인간의 진지한 예술 영역에 침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왔다. 머지않아 ‘예술 활동은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고리타분한 선입견으로 치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인공지능과 제로 트러스트

인공지능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 근무 형태가 활성화되면서 내외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관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가 주목받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신뢰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공급은 인공지능 작동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무 환경과 정보 시스템의 분산화로 모든 접근이 잠재적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관련 정보보안의 취약성 해결을 목표로 한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는 자동화된 머신러닝(오토ML, Auto Machine Learning), 고도화된 보안 및 데이터 전문가 양성,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 도입이 필요하다. 이때의 오토ML은 인공지능 전문가나 데이터 전문가 도움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머신러닝 개발 과정에 필요한 분석, 보안 행위를 반복하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 멀티 클라우드

모든 기업이 인터넷, 클라우드를 쓰는 것처럼 인공지능 플랫폼도 누구나 사용하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반도체는 클라우드 경쟁력의 기반인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다. 반도체 성능이 향상되면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머신러닝 처리 과정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막대한 자원과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끌어내고 있다.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로 발탁된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PC와 서버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을 직감하고 클라우드 서버 중심의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Azure)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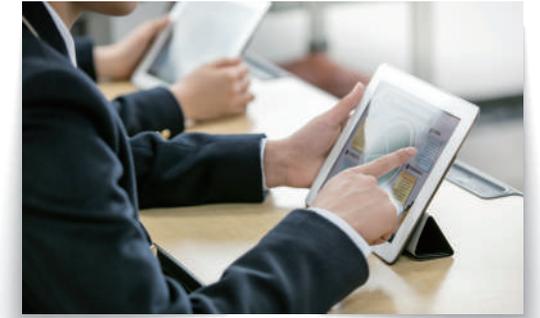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것을 '멀티 클라우드'라고 한다.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비용, 가동시간, 지연 시간, 다운타임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고객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 측면에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공급업체로의 종속을 방지할 수 있다.



###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인공지능'이 딥러닝(Deep Learning) 한 대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3차원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Metaverse)'라고 부른다. 사용자들은 메타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엔진인 고도화된 거대 학습모델을 통해 대화, 작곡, 작사, 그림, 프로그래밍 등을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인간의 페르소나(Persona)가 작동하는 메타 세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몸(Meta)을 얻는 일을 하게 된다. 메타버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가상' 세계라는 점이다. 실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혹은 할 수 없었던 것들도 '가상 세계' 안에서는 자유롭다. 다시 말해 메타버스 안에서는 하늘로 떠나 버린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나의 또 다른 자아를 실체화해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게 할 수도 있다. 가상의 것이 현실에 접목되고 현실의 것이 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메타버스의 본질이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온라인, 메타버스,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 정부혁신과 교육혁신

한국 정부와 기업도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며, 기술 우위를 이어가야 할 때다. 초거대 인공지능 사업은 궁극적으로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순식간에 기술 종속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양성하는 교육 분야의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에게 코딩 능력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역량, 의사소통역량, 협업역량, 창의성역량, 윤리 역량 등을 강화하는 교육시스템 혁신이 요구된다.

비록 인공지능에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비용을 감축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의 수준 높은 행복과 정서에 대한 탐색을 이어 나가면서,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윤리 의식 및 정책 사항의 명확한 정의와 관리·감독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든 이들의 땀이 ————— 쓰는 이들의 행복이 ————— 될 때까지 ————— **카드마케팅부**



다양한 카드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고객 기반 확대를 이뤄가는  
 카드마케팅부. 한층 더 풍부한 혜택 마련과 메리트 있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대는, 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넘치는 현장을 찾았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글 김이래 사진 박시홍 영상 유승현



제휴영업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서 이름에 ‘마케팅’이 들어가는 기업은행의 유일한 ‘마케팅’ 전담 부서인 카드마케팅부는 이른 아침부터 활력이 넘친다.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마케팅으로 실시되는 즐거움과 보람 때문인지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브레인스토밍에 진심이다. MZ세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이 합쳐지면 어벤져스가 부럽지 않다. 특히 카드마케팅부는 카드 홍보와 이벤트 기획 및 진행, 채널 섭외 등 카드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남다르다. 기획부터 섭외와 마케팅까지 못 하는 게 없다. 카드마케팅부는 카드마케팅팀, 제휴영업팀, 채널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드마케팅팀에서는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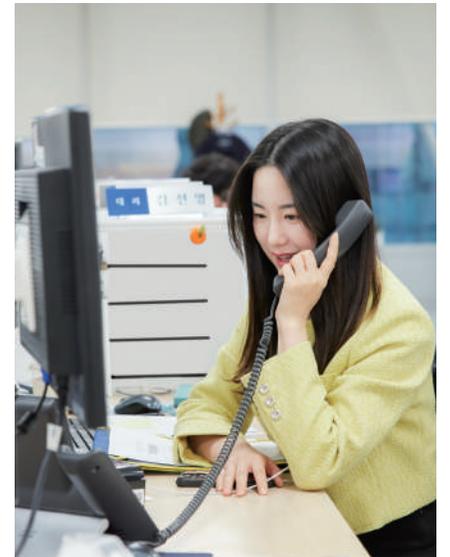
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제휴영업팀에서는 각종 기업,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특화 카드를 출시하여 이용 고객 확대에 기여하고, 채널영업팀은 전업모집인 제도와 외부 채널을 연계한 신규 유치 활동으로 개인신용카드 유치의 88%를 책임지고 있다. 최근 I-ALL 카드와 같은 카드 신상품을 영업점 boom-up 마케팅, 외부 플랫폼과 연계한 비대면 카드발급 프로세스 구축 확대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규 회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량 법인과 제휴를 통해 다방면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물론 업무를 진행하면서



# Dynamic

어려움도 있었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2022년 법인영업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드마케팅부의 발 빠른 시장 대응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영업에 힘을 쏟고 있다.

카드마케팅부는 카드 홍보와 이벤트 기획 및 진행, 채널 섭외 등 카드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남다르다.





채널영업팀

카드마케팅팀



# Big Data

##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서의 원동력이 되어

카드마케팅부는 다양한 문화마케팅 사업도 끌어가고 있다. 카드 사용자들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서트, 전시와 같은 다양한 콘셉트의 문화행사를 제공하며, 고객층을 공략하는 마케팅이다. 신규 회원 유치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발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고객 초청 문화행사 'IBK BLUE 희망콘서트'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객 로열티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개인 제휴카드 부문에서도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무민, 무직타이거, DC히어로즈로 이어지는 캐릭터카드 라인업을 완성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유승현 팀장은 "저희 부서의 경우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직원이 당행에서 실시하는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연수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수집, 활용, 추출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디지털 강의 참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부서 역량 강화에 힘쓴 노력들이 신규고객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데 원동력으로 이어졌다.

### IBK카드에 대한 자부심

카드마케팅부는 2023년 들어 디지털 금융시장의 확대와 결제 수단의 다변화로 인해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트렌드에 맞는 빠른 대응을 선보이고 있다. IBK카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기반 확대를 이뤄나가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이어온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IBK카드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IBK카드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며 카드 관련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세심하고 따뜻한 고객 관리로 IBK기업은행의 이미지 제고와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부서로 발돋움할 것이다.



### 채널영업지원실



송파센터 영업지원실



송파센터 영업지원실



안양센터 영업지원실

# Accessibility



대구카드영업센터



대전카드영업센터



대구카드영업센터

# IBK Card Pride

“저는 IBK카드가 타 카드사에 비해 절대 뒤쳐지지 않는 다양하고 풍부한 혜택의 카드와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풍부한 혜택과 이벤트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이용하고 싶은 카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서도 IBK카드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김연구 팀장은 카드마케팅부 직원들 모두가 IBK카드에 자부심을 갖고 항상 기쁘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직원으로부터 시작한 기쁨이 IBK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어져 행복 가득한 카드마케팅부가 되기를 바란다.

## Mini Interview



카드마케팅부  
맹재연 부장

### 근자열 원자래 (近者說 遠者來)

‘근자열 원자래’는 부장으로서 제가 꼭 잊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철학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먼저 챙기고 보듬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행원부터 팀장까지 고루고루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많은 분께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카드, 마케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마케팅엔 정답이 없다!

제가 버릇처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마케팅엔 정답이 없다!’입니다. 카드마케팅부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본인이 원하는 마케팅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전카드영업센터



### 카드마케팅부

나의 배려심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맹재연 부장



나먼저갈게

김연구 팀장



배려연구소

신수영 차장



전화해줄까

김선영 대리



선한영향력

배예지 대리



그럴수있지

심규현 대리



걱정하지마

윤소정 대리



네옆에내가

이혜지 대리



과망수과대

이학무 차장



잘하고있어

김지원 과장



지원해줄게

문은정 과장



커피사줄게

나영 대리



고민있나영

박지은 대리



덕분입니다

장다감 대리



대장다감해

전나라 대리



하고있어요

유승현 팀장



나보대우리

이규항 차장



활용해줄까

한다운 차장



늘려주세요

서보리 대리



내가해보리

손현우 대리



어디든가요

장주희 대리



내가마실게

정운영 대리



알잘딱깔센

황민희 대리



리액션천사

박선영 과장



같이해결해

김세연 대리



언제나OK

김영화 대리



힘이되줄게

손란 대리



우등갑사해

이동혁 대리



믿고맡겨요

이광창 팀장



사랑과이해

김도형 과장



대내팻이오

성문모 과장



해결해줄게

정영래 과장



도와줄게요

한유란 과장



나한테말해

이예림 대리



일정기대해요

정수진 대리



비대면배려

제미화 대리



같이할게요

조민정 대리



행복스마일



#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단한 탐구와 노력으로 기술혁신을 일궈내다

(주)에이프로  
임종현 대표



호계중앙지점 거래 기업

2차전지 산업에서 꾸준한 기술혁신을 이뤄내며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한 에이프로를 만났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끊임없는 탐구를 지속하는 그들의 땀방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으로 떠나보자.

글 김이래 사진 김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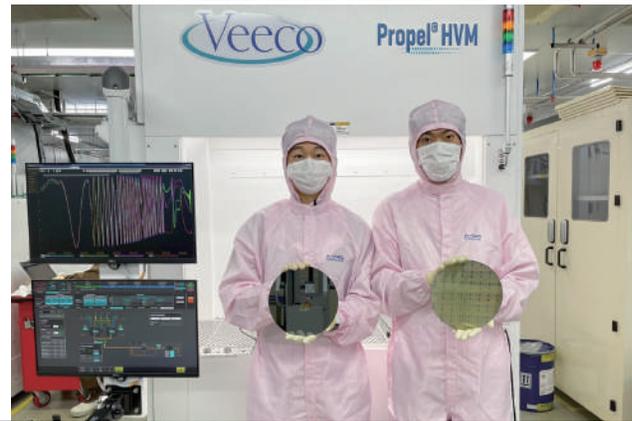
### 전념과 소통으로 일궈낸 성장

금정역 주변에 뻗뻗하게 자리한 건물들 사이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이 있다. 바로 20년간 2차전지 생산 공정 중 활성화 공정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성장해 온 에이프로다. 전원부의 전력 변환 회로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제어, S/W, 통신 등 전 분야에 대한 자체 기술을 보유한 에이프로는 효율 높은 설비로 2차전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ESS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들이 고용량화되면서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회생해야 하는 필요가 생겼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전력 변환 회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전력 변환 기술은 충전과 방전 회로를 각각 두 개로 구성해서 에너지를 회생하는 기술이었는데, 저희가 보유한 기술은 충전과 방전을 한 회로에서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 전력 변환 회로 기술이었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2차전지 생산 공정 중에 활성화 공정은 조립된 배터리에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충전과 방전 그리고 에이징을 반복하는 설비와 측정설비들로 구성된다. 현재 에이프로의 사업영역은 이런 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설비들을 개발, 제조하는 분야이다. 에이프로는 국내 최초로 고온, 가압, 충전/방전 세 가지 공정을 하나의 설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고온 가압충방전기’를 양산라인에 적용했다. 그 덕분에 전체적인 공정 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전/방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2차전지의 성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설비를 통해 에이프로는 전력 변환을 넘어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저희의 성장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력 변환 회로 기술 한 가지에 전념하였다는 것과 고객의 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였다는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아 정형화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산라인을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하게 되는데요. 20여 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재화된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이프로 R&D 센터의 우수한 연구인력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시스템 통합적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공했다. 이는 에이프로만의 차별화된 장점으로 자리 잡으며 2차전지 분야에서 에이프로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저희 회사는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의 고객의 니즈와 저희 R&D 센터에서 고도화된 기술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적용하여, 저희 설비들의 기술적 고도화를 추구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현장의 효율 극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고객에게 차별화된 역량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간 쌓아온 그동안의 경험과 고객의 신뢰가 합쳐지면서 에이프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입지를 구축했다. 한 분야에 전념하는 끈기와 고객의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였다.

저희의 성장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력 변환 회로 기술 한 가지에 전념하였다는 것과 고객의 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였다는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 매 순간이 위기이자 기회

단단하게 입지를 쌓아온 에이프로이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냐는 질문에 임종현 대표는 매 순간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엔지니어들이 월급까지 반납하면서 근무해야 했던 시기에도 회사를 믿어준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던 때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그때가 2010년 당시였는데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디스플레이 분야의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부도의 위기까지 몰렸었습니다.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믿고 월급을 받으면서까지 함께해주었기 때문에 그걸 원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넘기며 에이프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은 다름 아닌 고객의 요청 덕분이었다. 전력 변환 회로 관련 업무만을 해왔기 때문에 자동화 관련 엔지니어가 전무했던 에이프로는 활성화 설비 전문 업체에서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고객사 담당자의 요청으로 설비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동화 관련 엔지니어와 노하우가 없던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거쳤고 엔지니어들과 한 달 이상을 노력한 끝에 ‘고온가압충방전기’ 설비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 에이프로는 한계를 넘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에이프로의 특징점**

**Step.1**

시스템 통합 운영 능력

시스템 및 기구 설계, 제어, S/W, 통신, 최종 검수까지 생산/조립을 제외한 초과정 자체 기술 보유

**Step.2**

전력 변환 및 제어 파트의 전문성

고객을 통해 검증된 전력변환기술

**Step.3**

고객 맞춤형 설계역량

자체 S/W, 제어, 통신프로그램 역량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설계 및 제공

“고객분들에게 공정 설비를 선제적으로 제안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는 원가경쟁력과 생산성 극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에이프로의 구성원 중 절반이 R&D 인력이고 저희의 모든 성장에는 크든 작든 지속적인 R&D를 통한 신규 공법과 설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혁신’들이 지금의 에이프로가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끝까지 혁신을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설비의 지속적인 혁신의 과정 가운데, 특별히 에이프로의 시그니처 설비라고 할 수 있는 ‘고온가압충방전기’는 또 하나의 혁신을 준비한다. 바로 배터리의 대형화 및 전극 물질 고성능화에 따른 배터리셀 내부의 가스포켓 체적부피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Pre-Degas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게 된다. 현재는 기술개발 단계에 있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혁신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 또한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연구와 노력 덕분에 에이프로



는 지난 2021년까지 연간 매출액 600억 원 내외를 시현하고 있었으나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증가하였고 이를 대부분 올해 내에 출하하여 매출 규모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고객의 생산 현장에 법인 형태로 주자원을 파견하여 고객을 지원하는 에이프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 폴란드, 중국 해외법인 외에 인도네시아에도 현지 법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비전을 이야기하기 위해 저희의 시장을 2차 전지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전기차(EV)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전기차(EV)시장에 알맞은 필수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과 급속방전 그리고 사용된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진단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이프로는 이러한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10분 내 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AI 기반의 사용 후 배터리 진단설비’, 전원부의 내구성이 한층 강화된 ‘EV 급속충전기’,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기초한 ‘특수목적 EV용 자율주행 플랫폼’ 등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임종현 대표의 눈은 에이프로 앞에 펼쳐진 미래만큼이나 반짝였다.



‘기술혁신’들이 지금의 에이프로가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끝까지 혁신을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Mini Interview ①



기술혁신을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 IBK기업은행



에이프로 임종현 대표

Q.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두말할 것도 없이, ‘기술혁신’입니다. 이제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매일 같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2차전지 시장에서 기술적 기초가 되어주는 원천기술을 기반 삼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 없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에이프로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저희 에이프로는 2000년 설립 시점부터 IBK기업은행과 인연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기업 성장의 주요 변곡점마다 든든한 금융 동반자 기업은행의 지원이 도약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의 에이프로가 있기까지 동고동락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설립 초기 성장통을 겪던 때나 현재와 같이 좋은 성장세를 보이는 시기에 항상 곁에서 실질적 지원과 진심 어린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는 기업은행과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Mini Interview ②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계중앙지점 백미자 지점장

Q. <with IBK> 독자들을 위해 호계중앙지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수도권 중심지인 안양시에 위치한 IBK 호계중앙지점은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며 수도권-경기도의 핵심 거점 점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곁에서 진심을 다하는 최상의 금융 파트너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혁신기업, 기술형 미래 기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기업의 더 큰 성장을 약속하는 은행, 금융·비금융의 모든 분야를 서포트하는 지역 내 대표 금융기관입니다.

Q.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에이프로의 비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A. 기업은행의 오랜 동반성장 파트너, 에이프로가 추구하는 가치는 ‘기술혁신’과 ‘고객 만족’입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듯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IBK와 에이프로는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이프로는 최상의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혁신적 기술력을 밑바탕 삼아,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IBK는 에이프로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혁신금융 동반자로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성공의 미래를 앞둔



## IBK창공 기업

### IBK창공 마포

해외상품  
거래의 혁명

**와이오엘오 | YOLO Corp.**

#### 와이오엘오

89개국 2.2만여 명의 현지 셀러들이 입점해 50만여 개의 해외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 크로켓을 통해 약 210만 명의 어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yolocorp.kr](http://yolocorp.kr)

### IBK창공 구로

저지방 육류의  
재발견



#### 딥플랜트

딥에이징(Deep Aging) 기술로 저지방 비선호 부위도 맛있게 만드는 푸드테크기업으로, 고급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유통사, 온라인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deeplant.com](http://deeplant.com)

### IBK창공 부산

반려동물등록  
문화 선도



#### 와이펍

10여 년간 수의사로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ypet.co.kr](http://ypet.co.kr)

### IBK창공 대전

대여 기반  
체험형 커머스



#### 어라운드러블

생활 밀착형 상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픽앤픽'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체험하고, 공급자는 상품 홍보 및 마케팅 리포트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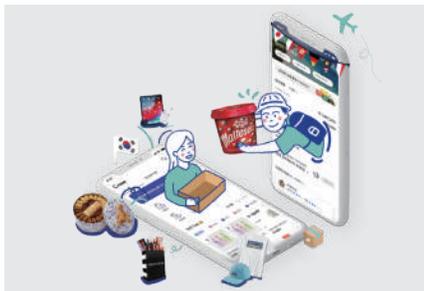
[m.picknpick.co.kr](http://m.picknpick.co.kr)

IBK항공 마포

SNS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해외상품 거래

**와이오엘** | YOLO Corp.

와이오엘은 해외상품 거래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해외쇼핑플랫폼 ‘크로켓’을 운영하고 있다. 크로켓은 89개국 2.2만여 명의 현지 셀러가 입점한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50만여 개의 해외 한정판, 타임 딜, 현지 오프라인 제품 등이 거래되고 있다. 특히 크로켓에는 개인 셀러 외에도 공식 브랜드 딜러부터 아울렛, 이마트와 같은 대형 입점사까지 다양한 셀러들이 입점해 있다. 셀러가 자신의 제품을 SNS처럼 홍보할 수 있고, 구매자와 1:1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셀러와 구매자를 쉽고 빠르게 연결해줌으로써 론칭 이후 20개월간 GMV 기준 약 50배 성장했다.** 와이오엘은 앞으로 크로켓의 글로벌 버전 정식 론칭, 크로켓 리셀 서비스 론칭 등을 통해 더욱 성장해나갈 예정이다.



IBK항공 구로

비인기 부위를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



딥플란트는 도축 후 버려지는 소와 돼지의 비선호 부위를 맛있게 만드는 딥에이징 기술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딥에이징 시스템(Deep Aging System)은 빙온, 수압, 초음파 방식을 혼합한 물리적 특수 숙성 방식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인 카텡신(Cathepsin)을 활성화한 후 단백질 분해를 가속화하여 **숙성 시간을 단축하고 감칠맛과 보수력을 좋게 하며, 연도도 부드럽게 하여 육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격과 칼로리를 낮추고,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있으며, 현재 고급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 유통사,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딥플란트는 글로벌 육류 간편식 시장과 대형 유통사, 미국 및 동남아 진출을 통해 점차 사업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IBK항공 부산

간편한 반려동물 등록으로 건강까지 원스톱 서비스



와이펫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장 먼저 ‘초간편 동물등록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 이는 직접 관할 구청에 방문해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로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동물보호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방식이다. 또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내장칩을 개발했는데, 이는 체온과 혈당 측정이 가능한 내장칩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동물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와이펫 앱을 통해 자세한 검진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동물병원의 모객활동, 상담, 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반려인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IBK항공 대전

체험형 제품 대여 서비스 플랫폼



어라운드블은 확대되어가는 렌탈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픽앤픽’을 운영하고 있다. **픽앤픽은 생활 밀착형 대여 서비스 및 체험형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다.** 사용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 기반의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의 공급자에게는 상품 홍보 효과와 동시에 상품 사용 후 마케팅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체험 기반 마케팅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렌탈 및 체험 사업을 경험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시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를 통해 매출 극대화를 이뤄가고 있다. 어라운드블은 서비스 인지도 강화 및 마케팅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내 최대의 체험 기반 커머스로 자리잡을 것이다.



# 나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은?

바야흐로 캠핑 전성시대다. 코로나가 쏟아올린 화수분은 비대면 코드와 맞아떨어지며 캠핑에 권태기를 맞은 사람은 물론 캠린이들의 마음마저 열광시켰다. 아날로그, 백색소음, 타인의 무관심, 약간의 돈 그리고 발품만 있다면 캠핑의 감동과 재미, 추억과 여운은 오롯이 나의 몫이 된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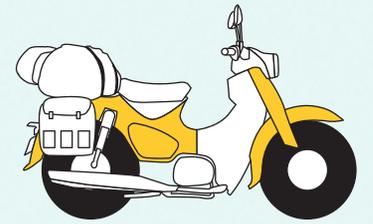
## BMW\*로 떠나는 낭만 캠핑

\* 버스·메트로·워킹



### 바이크 캠핑

로드, MTB, 미니벨로 등 상관없다. 생활 자전거도 가능하다. 바이크 캠핑의 가장 큰 장점은 루트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 가고 싶은 길을 달리고, 쉬고, 먹고, 자연 끝이다. 속도에 비례한 경치와의 눈 맞춤은 낭만의 최상급이다.



### 모토 캠핑

일반 자전거의 한계를 극복한 모토 캠핑. 모터의 도움 덕분에 짐 무게와 업힐의 부담에서 자유롭다. 덕분에 많은 짐을 싣고, 보다 멀리, 더 험한 곳을 갈 수 있다. 자동차로 갈 수 없는 곳도 거뜬하다. 문전 연결성이 좋아 퇴근박도 가능하다.



### 백패킹

가장 원초적인 백패킹은 '짚어지고 나른다'라는 뜻의 도보여행이다. 때문에 콤팩트한 장비와 초경량 아이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량화는 곧 돈이다. 아쉽지만 자신의 두 다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탈압박은 오직 체력뿐이다.



### 시티 캠핑

시군구에 있는 도심 속 시티 캠핑은 마실 가듯 그냥 가면 된다. 서둘러 가느라 반차를 쓸 필요도 없다. "도심에서 무슨 캠핑이냐?"라는 불멘소리는 "캠핑의 매력은 복합적이고 재미는 주관적"이라는 말 앞에서 주눅 든다. 예약 광클은 필수다.

## 럭셔리로 떠나는 감성 캠핑



### 글램핑

럭셔리한 아웃도어 캠핑하면 단연 글램핑이다. 이국적 분위기는 물론 해외 휴양지 부럽지 않은 전망과 부대시설 그리고 무제한 바비큐 등 기본 옵션이 탄탄하다. 고급호텔 못지않은 어메니티와 굿즈,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 등도 완벽하다.



### 캐러밴 캠핑

글램핑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캐러밴, 일명 알빙은 캠핑 계의 에르메스다. 클래스가 남다르다. 에어스트림,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국적의 캐러밴을 만날 수 있다. 개별 바비큐 테크, 프라이빗한 파티 등 사실상 사치의 끝판왕이다.



### 오토 캠핑

텐트와 각종 캠핑장비를 싣고 떠나는 오토 캠핑은 가장 대중적이다. 주차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차박이 가능하다. 꼬리텐트, 차박텐트, 루프탑텐트 등만 연결하면 훌륭한 노지 차박을 경험할 수 있다.



### 텐트 트레일러 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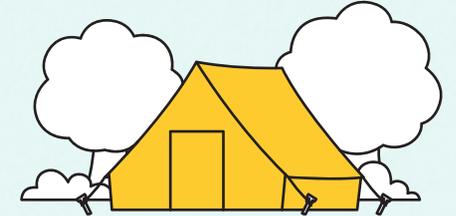
움직이는 별장, 가성비 최고인 텐트 트레일러는 캠퍼들의 로망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로 캠핑카 입문용으로 제격이다. 캐러밴보다 무게도 가벼워 부담이 덜하다. 다만 세면대,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부재는 아쉽다.

## 나 홀로 떠나는 모험 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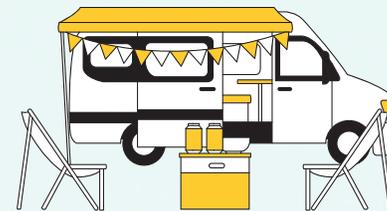
### 솔로 캠핑

뭐든지 혼자서 척척 잘하는 '나홀로족'에게 강추하는 캠핑이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솔캠으로 떠나자. 단, 텐트 치는 법, 장비 사용법 등 미리 시뮬레이션하지 않으면 힐링 캠프가 아닌 킬링필드를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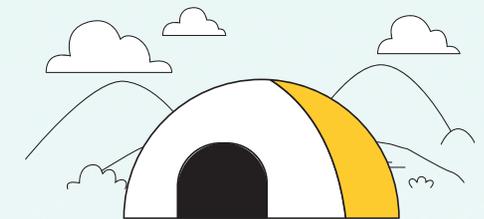
### 미니멀 캠핑

필요한 장비만 최소화한 캠핑이다. 캠핑은 이동에 따른 부피와 무게를 무시할 수 없다. 중복된 장비를 미리 확인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간소하게 즐기자. 사실 한두 번 고생한 경험치의 굳은살이 알아서 무게를 줄여준다.



### 맥시멀 캠핑

캠핑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꼭꼭 누르다 못해 기어코 다 채워 넣는 우격다짐 캠핑이다. 용어가 따로 있다기보단 미니멀 캠핑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통 단기 숙박이 아닌 장박(장기숙박)에서 많이 보인다.



### 오지 캠핑

일명 부시크래프트(Bushcraft). 숲, 수품을 뜻하는 영단어 'bush'와 기술을 뜻하는 'craft'의 합성어로 주로 자연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도구의 제작과 이용, 또는 그러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즐기는 캠핑이다. 진정한 고수다.

## 속보 경쟁이 낳은 오탈자 부끄러움은 독자의 몫

신문, 잡지, 방송 등 소위 언론사로 불리는 매체와 간물의 기사는 대조와 교열 등을 거치기 때문에 오탈자가 없는 게 상식이다. 당연하다. 기록하는 자, 즉 '기자(記者)' 집단이다 보니 일종의 직업병 같은 생리가 디폴트처럼 탑재돼 있다. 하지만 특종보다 무섭다는 낙종을 피하기 위한 속보 경쟁은 '오탈자'라는 옥에 티를 낳기도 한다. 이럴 때면 어김없는 쓴소리가 댓글 창에 도배되기 일쑤다.

글 편집실 출처 국립국어원



**절대절명**  
↓  
**절체절명**  
'경제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절체절명'이 맞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처럼 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이르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본뜻은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몸 체(體)자'를 씁니다. 따라서 '절체절명'이 맞고 '절대절명'은 틀린 표기입니다.

**장마비**  
↓  
**장맛비**  
'3저 불황이 장마비처럼 쏟아진다'  
장마 때에 오는 비는 '장맛비'가 맞습니다. 합성어로 발음은 '장마뽀'입니다. 그러나 이를 사이시옷을 넣지 않고 된소리가 나지 않는 '장마비'로 흔히 잘못 표현합니다. 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뒷소리가 된소리로 나면 앞말의 받침에 '시'를 받쳐 적어야 올바릅니다.

**휘둥그레지다**  
↓  
**휘둥그레지다**  
'고물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라거나 두려워서 눈이 크고 둥그렇게 될 때, '휘둥그레지다'가 옳습니다. 어감(語感)이 약한 말로 '회둥그레지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휘둥그레지다'만 표준어로 삼습니다. '휘둥그레지다'처럼 모음조화를 파괴한 경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밀어부쳤다**  
↓  
**밀어붙였다**  
'저성장의 강한 압박이 밀어부쳤다'  
'부치다'와 '붙이다'는 의미에 따라 구별해야 하는 말입니다. '붙이다'는 '붙다'에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부치다' 역시 역사적으로는 '붙이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붙이다'는 '붙다'의 의미가 살아 있고 '부치다'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다**  
↓  
**달리다**  
'경제 한파 속 힘이 딸리다'  
'달리다'가 맞습니다. 재물이나 기술, 힘 등이 모자람을 뜻할 때는 '달리다'를 써야 합니다. '체력이 달려서', "호흡이 달려서 노래를 못 한다"처럼 씁니다. 이와 달리 '딸리다'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셋이나 딸린'처럼 씁니다.

**풍지박산**  
↓  
**풍비박산**  
'G7, 예외 없이 풍지박산'  
'풍비박산(風飛雹散)'은 '사방으로 날아 흩어지다'라는 뜻으로 '날 비(飛)자'를 씁니다. 따라서 '풍비박산'이 맞고 '풍지박산'은 틀린 표기입니다. 또 '흩어짐'을 의미하는 '산(散)'을 오해해 '풍비박산', '풍지박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 틀린 표기이니 주의하세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 실천의 시작**

IBK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청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내리대출 금리감면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지역 특산품 생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해내리대출'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2%p의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해내리대출'은 IBK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상품으로 2020년 1월 출시 후 현재까지 약 5.8조 원이 공급됐다. '해내리대출'은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운영자금은 물론,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투자 목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한국관광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및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위케이션 사업 운영, ▲중기(中企)-구직자 일자리 매칭지원, ▲우수 채용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협업체를 구성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기업부담금 10만 원을 1,000명에게 지원하며, '위케이션' 사업도 추진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i-ONE JOB'과 한국관광공사 채용포털 '관광인'을 연계해 구인정보를 공유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면접지원금을 지원하며, 근로자 역량강화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IRP 이용자는 주목!  
'IRP는 IBK에서'**

기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신규 등록(자동이체기간 12개월 및 이체금액 10만 원 이상), ▲기존 자동이체 등록고객의 이체등록금액 10만 원 이상 증액, ▲자기부담금 1백만 원 이상 추가입금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숙박권(3명)과 신세계모바일상품권(2,147명)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기간 내 모바일앱을 통한 IRP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5천 원 상당의 상품권(1,000명)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평생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bk.co.kr)와 모바일뱅킹에서 확인 가능하다.



**'IBK급여라운지' 가입고객  
10만 명 달성기념 이벤트 실시**

'IBK급여라운지'는 매월 IBK계좌로 5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고객에게 스탬프를 제공하고, 고객은 적립된 스탬프를 사용해 각종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비대면 혜택판이다. 또 급여실적 현황, 제휴 할인쿠폰, 재테크 정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며 'IBK급여라운지' 가입고객 중 첫 급여를 받은 고객 대상 9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3만 원)을 지급한다. 또 급여라운지 첫 입장 고객 중 'IBK급여라운지'에 친구를 5회 이상 초대 한 고객 10명을 추첨해 '도미노 피자 오리지널 포토이토 모바일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i-ONE뱅크 앱 이벤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일 부행장  
신임 전무이사 임명**

신임 전무이사(수석부행장)에 김형일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이 임명됐다. 김 전무는 1992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약 30년간 전략기획부장, 글로벌사업부장, 혁신금융그룹장, 경영지원그룹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실무능력과 리더십을 검증받아 전행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혁신금융그룹장으로 근무할 때 기술금융과 IP금융, 모험자본 확충 등 미래혁신금융을 주도했다. 또 경영지원그룹장을 역임하며 성과와 역량 중심의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는 데 일조했다.



# 이달의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뽑힌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 4월의 단어

### 괜찮아 한 번 더!

이번 호 N행시는 '찮'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어서 '괜찮아(아) 한 번 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 주어진 6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 N행시 예시

\*위 N행시는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괜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한 한 걸음 더 가까이  
차 차가 갑자기 지나가서 번 번번이 반하네요.  
나 나한테 가까이 와요. 더 더 사랑할게요.

## N행시 이벤트 참여하기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나 엽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4월 1일 ~ 4월 30일 (엽서는 30일까지 도착)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로 로그인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5월 15일 이내



## N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



덜덜덜 떨면서 지루하게 보내기도 하고 루시디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했는데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 재충전하는 마음으로

-안ㅇ임-

덜덜덜 떨면서 지루하게 보내기도 하고 루시디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했는데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 재충전하는 마음으로

-안ㅇ임-

덜덜덜 떨면서 지루하게 보내기도 하고 루시디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했는데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 재충전하는 마음으로

-정ㅇ재-

덜 떨어지고, 지능도 낮은 루저 하지만 게슴츠레 뜬 눈으로 하늘을 보고 다짐한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재수가 없으면, 미치도록 열심히 해야지!

-김ㅇ혁-

덜 떨어지고, 지능도 낮은 루저 하지만 게슴츠레 뜬 눈으로 하늘을 보고 다짐한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재수가 없으면, 미치도록 열심히 해야지!

-김ㅇ혁-

덜 떨어지고, 지능도 낮은 루저 하지만 게슴츠레 뜬 눈으로 하늘을 보고 다짐한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재수가 없으면, 미치도록 열심히 해야지!

-김ㅇ혁-

덜 떨어지고, 지능도 낮은 루저 하지만 게슴츠레 뜬 눈으로 하늘을 보고 다짐한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재수가 없으면, 미치도록 열심히 해야지!

-김ㅇ혁-

# 이달의 인증샷

<with IBK> 4월호에 소개된 맛집과 여행지를 직접 방문해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 [4월호에 소개된 곳]

38p IBK맛집노트 경기남부 맛집	44p 발길 닿는 길 거문도	56p IBK산 유명산	64p IBK버킷리스트 도마 만들기
---------------------------	-----------------------	--------------------	---------------------------

## 인증샷 이벤트 참여하기

인증샷을 찍었다면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참여 방법 : 아래 QR코드로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5월 15일 이내



# with IBK # IBK맛집노트  
# 발길 닿는 길 # IBK산 # IBK버킷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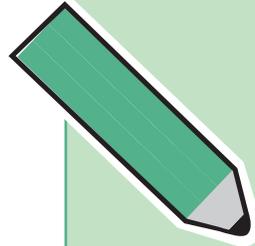
뒷면에  
반려식물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고 해요.  
때때로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도 오는  
곳은날도 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하죠.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돌아난 새싹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잠시 움츠렸던 시간은  
활짝 피어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일 거예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에게

괜찮아 한 번 더!



# 이달의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뽑히신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 4월의 단어

### 괜찮아 한 번 더!

이번 호 N행시는 '찮'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어서 '괜찮아(아) 한 번 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 주어진 6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 N행시 예시

\*위 N행시는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괜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차 차가 갑자기 지나가서  
나 나한테 가까이 와요.

한 한 걸음 더 가까이  
번 번번이 반하네요.  
더 더 사랑할게요.

## N행시 이벤트 참여하기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나 엽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4월 1일 ~ 4월 30일 (엽서는 30일까지 도착)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로 로그인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5월 15일 이내



## N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



<p>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루루라라 신나게 하루하루 보낸다면 좋으리. 게다가 더불어 재미있게 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좋으리</p>	<p>있잖아, 우리 계을리하지 않으면 꼭 이를 수 있어 -강○철-</p>	<p>덜 떨어지고, 지능도 낮은 루저 하지만 계슴츠레 뜬 눈으로 하늘을 보고 다짐한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 재수가 없으면, 미치도록 열심히 해야지!</p>	<p>있잖아... 계임 미션 하듯이 하나씩 클리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너도 더욱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김○혁-</p>	
<p>덜덜덜 떨면서 지루하게 보내기도 하고 루시다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했는데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 재충전하는 마음으로</p>	<p>미련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계을리 살지 말고 부지런히 살자 -안○임-</p>	<p>덜어서 무게를 줄여 지계를 지지 않아도 루루랄랄하며 가볍게 갈 수 있고 하루가 즐거우니 계으름 필 수 있고 더더욱 재미있게 놀다 보니</p>	<p>미소 지으며 있지 못할 날이 되었지만 계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겠다 -정○재-</p>	<p>덜익은 마음이다 지루한 일상이다 루에서 보이는 풍경은 하늘은 맑고 차가웠다 계식의 여유도 없는 나의 삶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재미있고 행복한 소소한 일상을 -정○훈-</p>

# 이달의 인증샷

<with IBK> 4월호에 소개된 맛집과 여행지를 직접 방문해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 [4월호에 소개된 곳]

38p  
IBK맛집노트  
경기남부 맛집

44p  
발길 닿는 길  
거문도

56p  
IBK산  
유명산

64p  
IBK버킷리스트  
도마 만들기

## 인증샷 이벤트 참여하기

인증샷을 찍었다면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4월 1일 ~ 4월 30일  
참여 방법: 아래 QR코드로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5월 15일 이내



# with IBK # IBK맛집노트

# 발길 닿는 길 # IBK산 # IBK버킷리스트



## 푸릇푸릇! 봄 내음 가득

# 홈가드닝을 위한 반려식물 꿀팁!



식물과 교감하며 위안을 얻는 식집사들이 늘어나고, 인스타그램에서 '반려식물' 해시태그는 100만 개가 넘어섰다. 식물을 키우는 것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지금, 초보 식집사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다.

### 물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 수돗물은 하루 뒤에

수돗물은 대부분의 식집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이다. 수돗물은 용기에 받아 하루 정도 지난 뒤에 식물에 주는 것이 좋다. 수돗물 속의 염화수소를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을 주면 식물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식물의 온도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빗물은 보약!

빗물에는 질소와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어 빗물을 받아 사용하면 좋다. 빗물을 주고자 할 때는 빗물받이통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너무 오래 고여있지 않게 빨리 사용한다. 또 식물에 물을 주기 전에 물 온도를 실내 온도와 맞춘 뒤에 주는 것이 좋다.

#### 배질과 수형에 따른 조절

일반적으로 흙 표면에 수분이 없어 손가락에 흙이 묻지 않을 때 주면 된다. 밤보다는 이른 아침에 물을 주는 것이 좋고, 습도가 많은 여름과 추운 겨울은 성장을 멈추는 시기이므로 물 주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수형이 작은 식물은 화분에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짧아 수형이 큰 식물보다 물을 자주 줘야 한다.

### 물은 언제 줘야 할까?



####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

수분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식물도 있지만, 화분의 흙이 항상 젖어있어도 괜찮은 식물도 있다. 아디안텀, 안스리움, 아펠란드라, 아라우카리아, 테이블야자, 접란, 크로톤, 코르딜리네, 드라세나, 고무나무, 구즈마니아, 몬스테라, 파키라, 필로덴드론, 필레아, 스파티필럼, 제브라나, 스킨답서스 등이다.

#### 흙의 표면이 건조할 때!

흙의 표면이 건조하면 '아, 이제 물을 줘도 되겠구나' 하는 식물들도 있다. 에스키난서스, 아글라오네마, 알로카시아, 셰프렐라, 디펜바키아, 헤데라, 호야, 페페로미아, 관음죽, 싱고니움, 틸란드시아, 유카 등의 식물이다.

#### 흙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죽는 식물도 많다. 화분의 건조한 흙 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흙 표면에서 2~3cm 깊이까지 수분이 말랐을 때쯤 물을 주면 된다. 알로에, 러브제인, 디지코데카, 산세베리아, 세덤 등이다. 스투키나 드라코 같은 식물은 한 달에 1회만으로도 충분하니, 식집사 초보나 1인 가구에서도 키우기 쉽다.



### 햇빛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



#### 양지식물은 온종일!

온종일 혹은 반나절 이상 직접적인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양지라고 한다. 이런 장소에는 사계절 꽃이 피는 식물이나 선인장, 다육식물을 키우기 적당하다. 관엽식물 중에서는 잎 색이 유난히 밝거나 무늬가 있는 종류가 양지에서 잘 성장한다. 허브류, 다육식물, 선인장, 올리브나무, 율마, 유칼립투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반양지식물은 반나절!

반양지는 하루 중 반나절 내외로 빛을 잘 받거나 겨울철에도 하루 2시간 이상 직접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대부분은 반사광이나 간접적인 빛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집의 창문을 거쳐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창가 공간도 반양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녹보수, 드라세나류, 벤자민 고무나무 등이 잘 자란다.

#### 반음지식물은 간접광!

반음지는 아침나절 또는 오후 3~4시간 정도 빛이 드는 곳이다. 거실 안쪽이나 커튼 등을 한 번 거쳐 들어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된다. 대다수의 열대성 관엽식물이나 잎 색이 진한 식물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열대우림의 나무 그늘에서 살아온 식물들이 여기 속한다. 바로 아자류, 열대 관엽식물, 틸란드시아 등이다.

### 겨울을 나기 좋은 온도는?



#### 10~15°C

식물들도 겨울나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비교적 높은 온도인 10~15°C에서 겨울을 나는 식물로는 아글라오네마, 알로카시아, 안스리움, 아펠란드라, 칼라데아, 크로톤, 콜럼네아, 피토니아, 네펜데스, 스킨답서스 등이 있다.



#### 5~10°C

5°C의 차가운 날씨를 견뎌낼 수 있는 식물들도 소개한다. 필로덴드론, 아디안텀, 에스키난서스, 아나나스, 공작야자, 테이블야자코르딜리네, 디펜바키아, 디지코데카, 드라세나, 에피프렐럼, 고무나무, 구즈마니아, 캔차야자, 호야, 몬스테라, 네프롤레피스, 파키라, 페페로미아,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럼, 싱고니움, 틸란드시아, 제브라나 등이다.

#### 0~5°C

물이 얼기 직전의 온도에서도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식물들도 있다. 그래도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한겨울엔 실내에 들여놓는 것이 안전하다. 접란, 아라우카리아, 알로에, 코르딜리네, 푸밀라 고무나무, 헤데라, 웨닉스야자, 관음죽, 셰프렐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뒷면에  
반려식물 콜라지가  
숨어 있습니다.

항상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고 해요.  
때때로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도 오는  
곳은 날도 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하죠.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돌아난 새싹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잠시 움츠렸던 시간은  
활짝 피어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일 거예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에게

**괜찮아 한 번 더!**

#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기쁘게도 합니다.

기쁨이든 실패에 울고,

보람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